

- ▷ 이 자료는 2008년 5월 5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에도 있습니다.

담 당 과	사회통계실
담 당 과 장	황 명 진
담당사무관	이 희 길
전 화 번 호	042) 717-0236,0237

2008 청 소 년 통 계

2008. 5.

- 최근 우리사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의 ‘삶의 질’ (인구, 교육, 노동, 사회참여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 2002년 이후 일곱 번째로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08 청소년통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통계개발원

차 례

I . 2008 청소년 통계 작성개요	1
II . 부문별 청소년 통계	3
1. 인구와 가족	3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3
1.2. 학령인구	4
1.3.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5
1.4. 다문화 청소년 현황	6
1.5. 청소년의 혼인	7
2. 교육	8
2.1. 진학률	8
2.2. 교원 1인당 학생수	9
2.3.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	10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11
2.5. 초등학생의 주된 학습방법	12
3. 노동	13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13
3.2.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구성비	14
3.3.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15
3.4.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16
3.5.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17
3.6.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시 소요기간	18
3.7.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19
3.8.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20

4. 보건	21
4.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1
4.2. 청소년 자살률	22
4.3. 중·고등학생 흡연율	23
4.4.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1회 평균 음주량	24
4.5.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	25
5. 복지	26
5.1. 아동 입양 현황	26
5.2.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27
5.3. 청소년 상담센터 현황	28
5.4. 장애인 학교 취학자	29
5.5.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30
6. 교통과 정보화	31
6.1. 컴퓨터 이용시간(주 평균)	31
6.2. 인터넷 이용장소	32
6.3. 인터넷 상거래(인터넷쇼핑) 이용여부	33
6.4. 이동전화 이용 여부	34
7. 문화와 여가·사회참여	35
7.1.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35
7.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36
7.3. 독서율 및 평균 독서권수	37
7.4. 해외여행 경험 횟수	38
8. 안전	39
8.1. 청소년 교통사고	39
8.2. 아동학대 현황	40
8.3.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	41
8.4.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42
Ⅲ. 통 계 표	43

I . 2008 청소년 통계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 최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교육, 노동, 안전, 복지, 건강 등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집을 작성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작성연혁 및 작성방법

□ 작성연혁

- 「2001 한국의 사회지표」의 일부로 수록
- 「2002 청소년 통계」를 별책으로 처음 작성 발간하였고 이후 매년 자료를 보완하여 청소년의 달인 5월 초에 발간하고 있음
- 「2008 청소년 통계」부터 작성기관이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에서 통계개발원으로 변경

□ 작성방법

- 각 기관 및 연구소 등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 보고통계 및 행정통계 포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청소년 범위

- 0~24세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모(母)통계 작성 특성에 따라 통계표에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활용통계에서 대상 청소년의 연령, 세부범위는 통계표를 참고

※ 청소년 기본법 : 9~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 0~18세(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4. 지표 수록현황

- 전체 8개 부문의 160개 지표 수록
 - 연도별 각 부문별 지표수 현황

부문	계	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보건	복지	교통 정보화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안전	유해 환경 접촉실태
2002년	88	9	13	3	21	3	11	11	17	-
2003년	167	21	13	5	29	16	18	16	21	28
2004년	161	18	14	16	29	16	16	19	33	-
2005년	165	17	24	18	34	16	14	18	24	-
2006년	167	14	24	19	32	21	14	18	25	-
2007년	161	14	24	19	31	19	13	19	22	-
2008년	160	16	17	21	30	20	11	21	24	-

Ⅱ. 부문별 청소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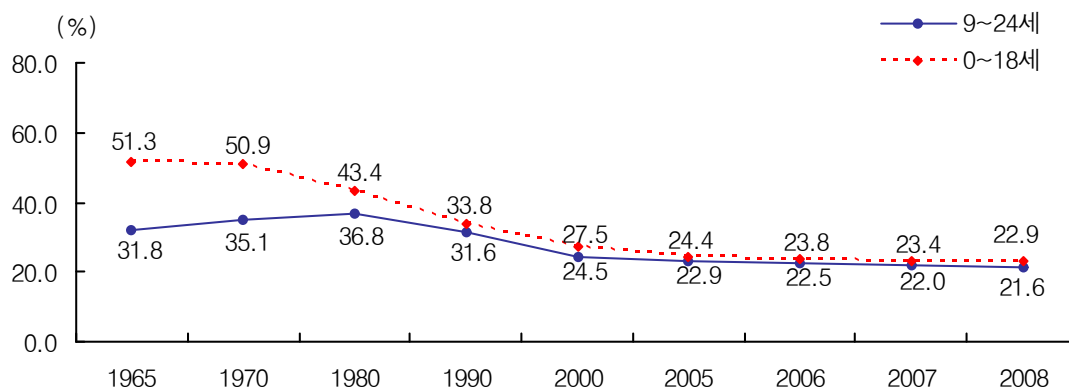
1. 인구와 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9~24세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1.6%로 1978년 36.9%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

- 2008년 현재 우리나라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11,120천명, 10,494천명으로 총인구의 22.9%, 21.6%를 차지함
 - 2007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5%p, 9~24세는 0.4%p 낮아짐
 - 0~18세 인구구성비는 1965년 51.3%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 33.8%, 2000년 27.5%, 2008년 22.9%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9~24세 인구구성비도 1978년 36.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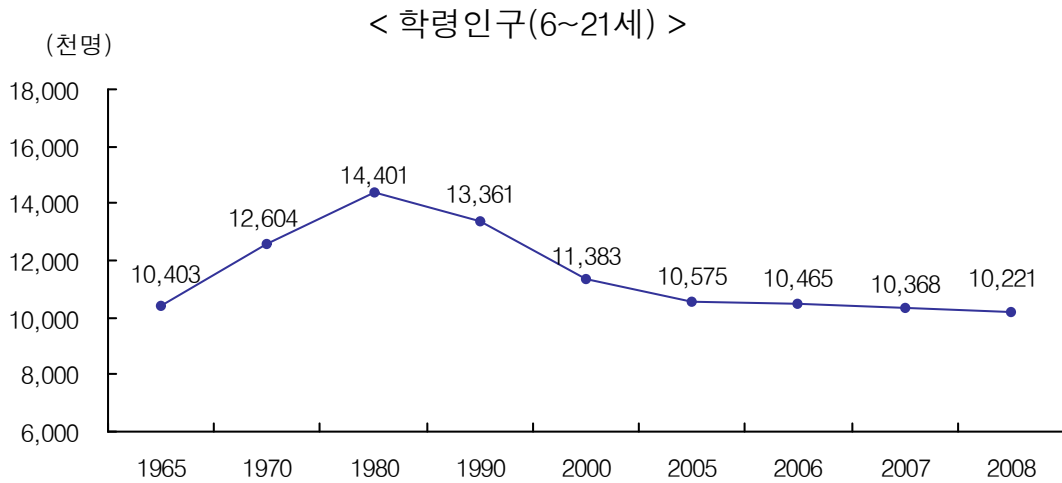
< 청소년 인구구성비 >



1.2. 학령인구

**2008년 학령인구(6~21세)는 10,221천명으로
1980년(14,401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08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0,221천명임
- 전체 학령인구에서 6~11세(초등학교) 인구의 비중이 35.6%, 12~14세(중학교) 20.3%, 15~17세(고등학교) 19.9%, 18~21세(대학교)가 24.2%임
-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1천명)에 비해 29.0%(4,180천명) 감소한 것이며, 2007년에 비해서도 1.4%(147천명) 감소한 것임



< 학령인구 >

(단위 : 천명)

	계 (6~21세)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5	5,057	1,815	1,618	1,913	10,403
1970	5,711	2,574	2,101	2,218	12,604
1980	5,499	2,599	2,671	3,632	14,401
1990	4,786	2,317	2,595	3,663	13,361
2000	4,073	1,869	2,166	3,275	11,383
2005	4,016	2,058	1,864	2,637	10,575
2007	3,806	2,095	1,971	2,495	10,368
2008	3,643	2,071	2,032	2,475	1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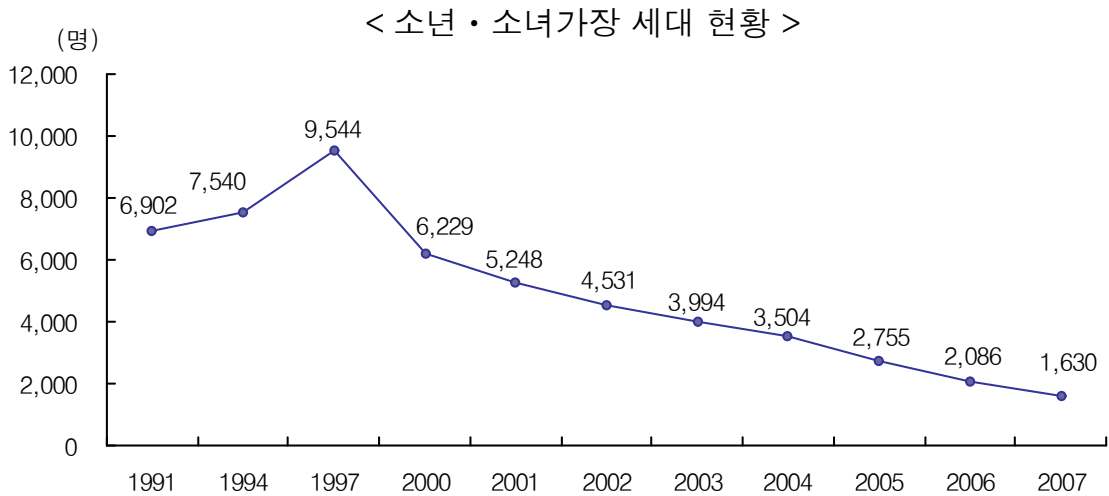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통계자료 52쪽

1.3.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2007년 소년·소녀가장은 총 1,630세대로,
1997년(9,544세대) 이후 계속 감소

- 2007년 소년·소녀가장은 총 1,630세대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은 2,501명이고,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25명(1.0%), 초등학교 401명(16.0%), 중학교 789명(31.5%), 고등학교 1,226명(49.0%), 기타 60명(2.4%)임
- 전년(2,086세대)에 비해 21.9%(456세대)가 감소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대)에 비해서는 82.9%(7,914세대) 감소하였음



<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

(단위 : 명)

	세대주	세대원 ¹⁾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²⁾
1991	6,902	13,985	121	3,650	4,093	3,194	2,927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2002	4,531	6,947	115	1,478	2,232	2,936	186
2004	3,504	5,444	87	1,244	1,681	2,331	101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6	2,086	3,271	39	572	1,031	1,570	59
2007	1,630	2,501	25	401	789	1,226	6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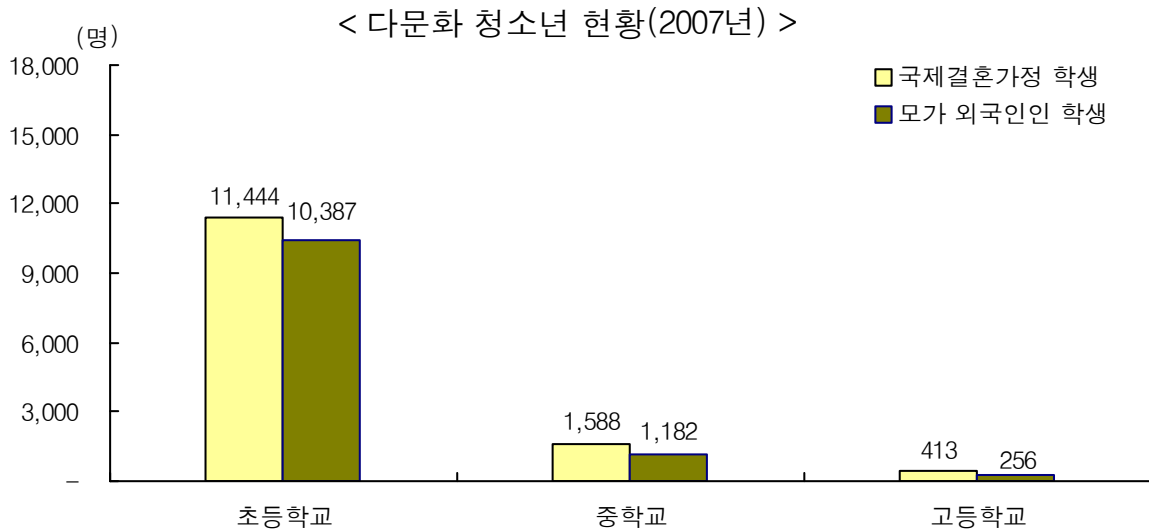
주 : 1) 세대주 포함

2) 대학 재학자과 미재학자 포함

1.4.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7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13,445명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1,825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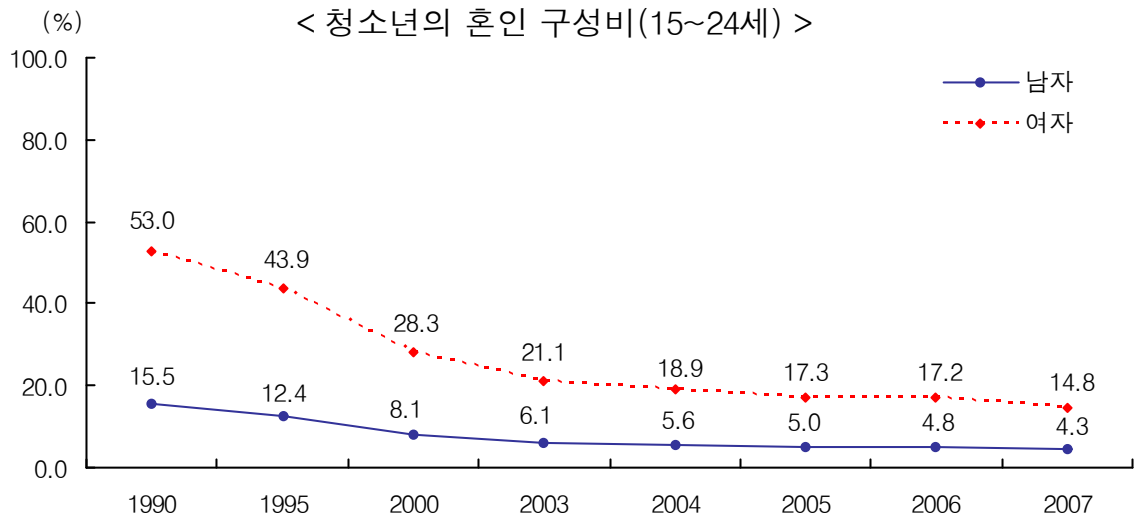
- 2007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전체 13,445명으로, 초등학생이 11,444명, 중학생이 1,588명, 고등학생이 413명임
-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1,825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88.0%이고,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은 초등학생이 90.8%, 중학생은 74.4%, 고등학생은 62.0%임



1.5. 청소년의 혼인

만혼 추세로 인해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07년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3%, 4.0%, 여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1.8%, 13.0%임
- 전년대비 남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4.5%에서 4.0%로 0.5%p, 여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14.9%에서 13.0%로 1.9%p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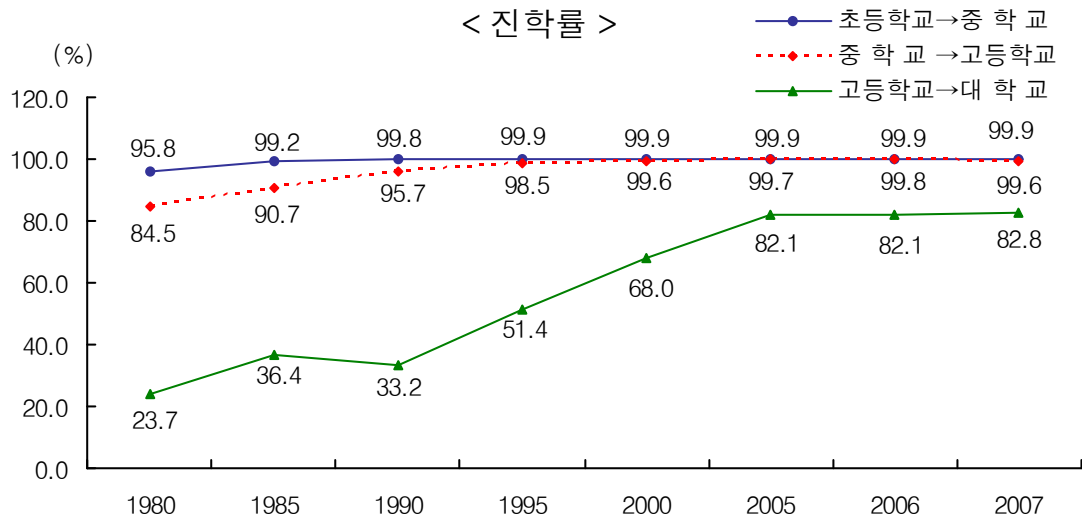


2. 교육

2.1. 진학률

2007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2.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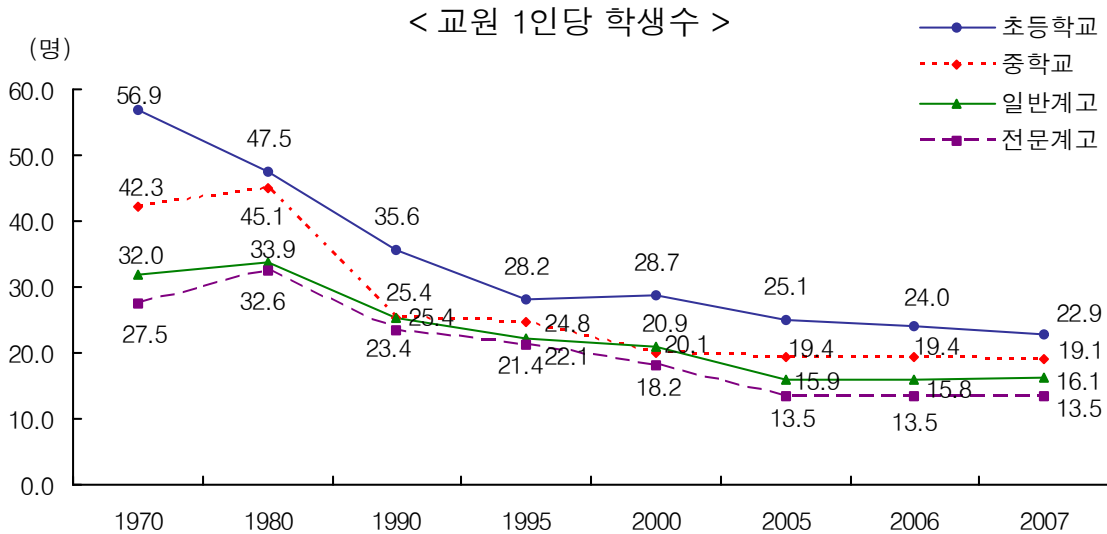
- 2007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2.8%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였음
 - 대학 진학률은 2006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2000년(68.0%)과 비교해도 14.8%p 증가하였음
- 2007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5년 이후 계속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임



2.2.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이나,
감소폭이 크지 않음**

- 2007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19.1명, 일반계 고등학교 16.1명, 전문계 고등학교 13.5명으로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1명, 0.3명 감소하였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같은 수준이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0.3명 증가하였음
-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5.8명, 중학교는 1.0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4.8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4.7명이 감소하였음



< 교원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¹⁾
1970	56.9	42.3	32.0	27.5
1980	47.5	45.1	33.9	32.6
1990	35.6	25.4	25.4	23.4
1995	28.2	24.8	22.1	21.4
2000	28.7	20.1	20.9	18.2
2005	25.1	19.4	15.9	13.5
2006	24.0	19.4	15.8	13.5
2007	22.9	19.1	16.1	13.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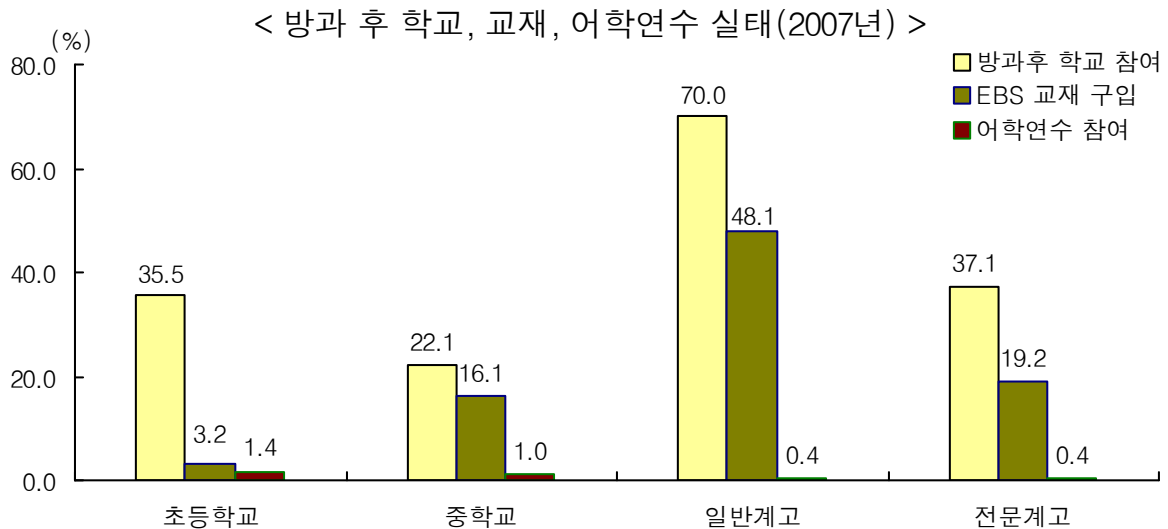
통계자료 64쪽

주 : 1) 2007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됨

2.3.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

2007년 일반계 고등학생의 70.0%, 중학생의 22.1%,
초등학생의 35.5%가 방과 후 학교에 참여

- 학교급별로 방과 후 학교의 종류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교과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은 특기 적성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자료 68쪽 참고)
- 200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EBS 교재 구입비는 2천원, 구입비율은 15.6%임
 - 일반계 고등학생의 구입비율이 48.1%로 가장 높으며, 전문계고(19.2%), 중학교(1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어학연수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4%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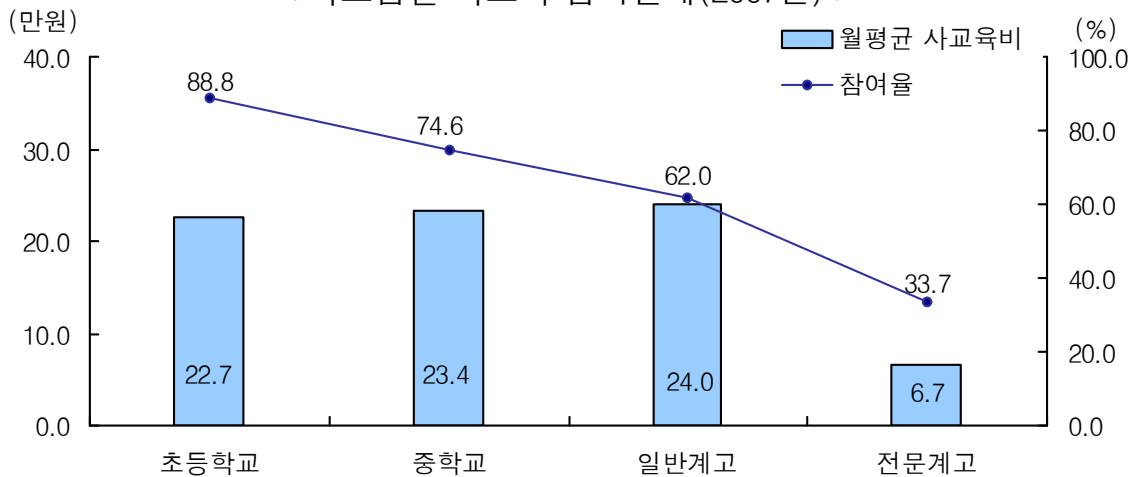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7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7.0%,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천원임

- 2007년 사교육 참여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전문계고를 제외하면 대도시일수록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이 88.8%로 가장 높으며, 중학생(74.6%), 일반계 고등학생(62.0%), 전문계 고등학생(3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광역시(91.8%)에서 가장 높으며,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생은 서울(각각 79.1%, 74.3%), 전문계 고등학생은 읍면지역(39.6%)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24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중학생(23만 4천원), 초등학생(22만 7천원), 전문계 고등학생(6만 7천원) 순임
 - 지역별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평균비용이 가장 높음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2007년) >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2007년) >

(단위 : %, 만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전 체	77.0	22.2	88.8	22.7	74.6	23.4	62.0	24.0	33.7	6.7
서 울	80.6	28.4	89.9	25.2	79.1	31.6	74.3	37.5	23.0	4.3
광 역 시	79.0	22.0	91.8	24.4	76.5	22.6	63.9	20.6	35.3	5.9
중 소 도 시	77.5	22.8	89.5	23.9	74.7	23.3	60.6	23.0	33.9	7.7
읍 면 지 역	66.4	12.1	79.8	13.2	62.9	13.1	33.9	7.8	39.6	7.9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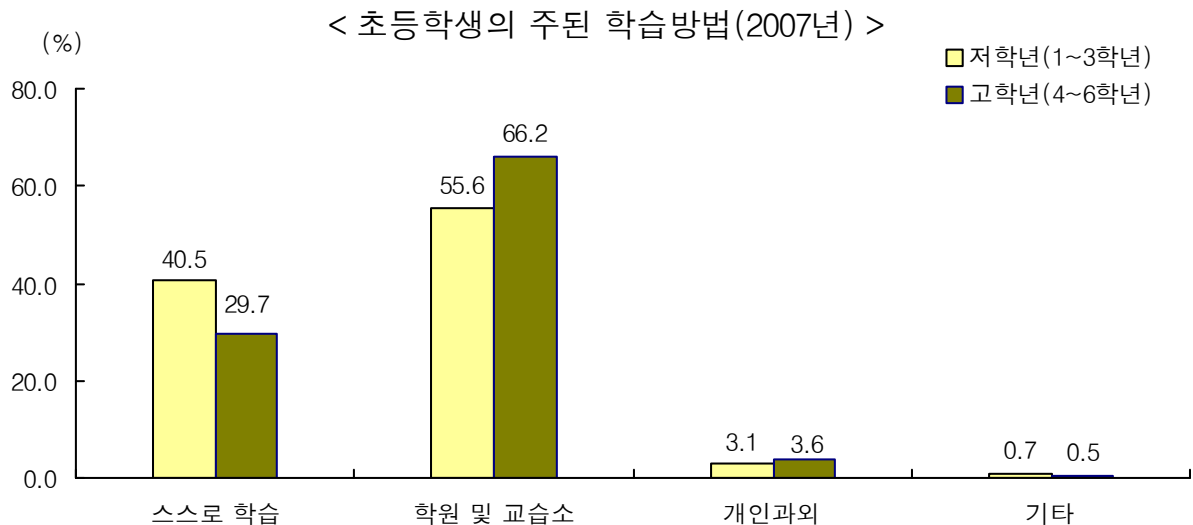
통계자료 69~70쪽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2.5. 초등학생의 주된 학습방법

초등학생 중 ‘스스로 학습’하는 경우는 34.6%이고,
64.8%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이용함

- 초등학생의 34.6%는 ‘스스로 학습’하고 있으며, 61.4%는 주로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3.4%는 ‘개인과외’를 주로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감에 따라 ‘스스로 학습’은 40.5%에서 29.7%로 감소하고, 학원과 과외의 활용도는 증가함
 -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이용비율이 70.9%로 어머니가 시간제 근무자(57.3%)나 전업주부(54.0%)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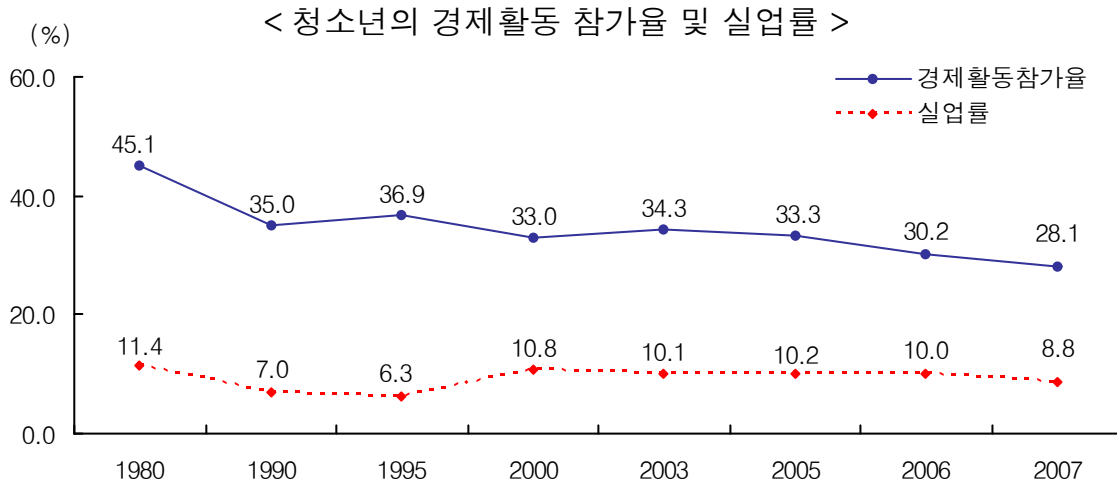


3. 노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007년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1%, 실업률은 8.8%

- 2007년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1%이며, 이 중 15~19세는 7.3%, 20~24세는 52.6%임
 - 1980년과 비교하면, 진학률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45.1%에서 28.1%로 17.0%p 하락
- 2007년 청소년(15~24세)의 실업률은 2006년에 비해 1.2%p 하락하여 8.8%이며, 이 중 15~19세는 9.3%, 20~24세는 8.7%임



3.2.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구성비

청소년 취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에 집중(84.8%)

- 2007년 현재 15~24세의 청소년 인구 중 취업자는 152만 4천명임
-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이 0.8%, 광공업이 14.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84.8%를 차지하고 있음
 -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 14.5%로 2006년(16.4%)보다 1.9%p, 농림어업은 0.1%p 하락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은 2.1%p 상승함
- 청소년 취업자 152만 4천명을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 22.9%, 사무직 24.6%, 서비스·판매 종사자 32.6%, 기능·기계·조립·단순노무 종사자는 19.3%임

< 청소년(15~24세)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단위 : 천명, %)

	취업자							
	계		농림어업		광공업		S.O.C ¹⁾ 및 기타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2005	1,826	100.0	14	0.8	332	18.2	1,480	81.0
2006	1,627	100.0	15	0.9	267	16.4	1,346	82.7
2007	1,524	100.0	12	0.8	220	14.5	1,292	84.8
15~19세	211	100.0	2	0.9	17	8.2	192	91.0
20~24세	1,313	100.0	10	0.8	203	15.5	1,100	8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 : 1) S.O.C : 사회간접자본

통계자료 77쪽

< 청소년(15~24세)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

(단위 : 천명, %)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2005	401	22.0	472	25.8	535	29.3	10	0.6	409	22.4
2006	389	23.9	412	25.3	483	29.7	9	0.6	334	20.5
2007	349	22.9	376	24.6	497	32.6	9	0.6	294	19.3
15~19세	20	9.4	24	11.4	122	57.9	2	0.8	43	20.5
20~24세	329	25.1	351	26.8	375	28.6	7	0.5	250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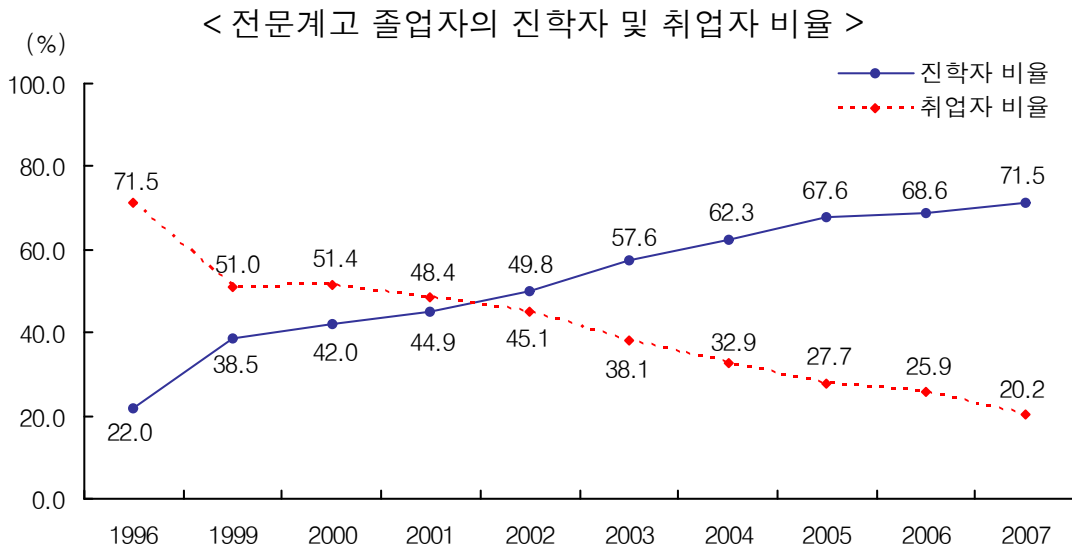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78쪽

3.3.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전문계고 졸업자 중 진학자는 10명 중 약 7명으로 증가세이고
취업자는 10명 중 약 2명으로 감소세임

- 2007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71.5%는 대학 및 각종학교에 진학하였고, 20.2%는 취업하였음
- 2002년을 기점으로 진학자 비율(49.8%)이 취업자 비율(45.1%)을 넘어섰으며, 2000년에 비해 진학자 비율은 1.7배 이상 증가한 반면, 취업자 비율은 51.4%에서 20.2%로 낮아져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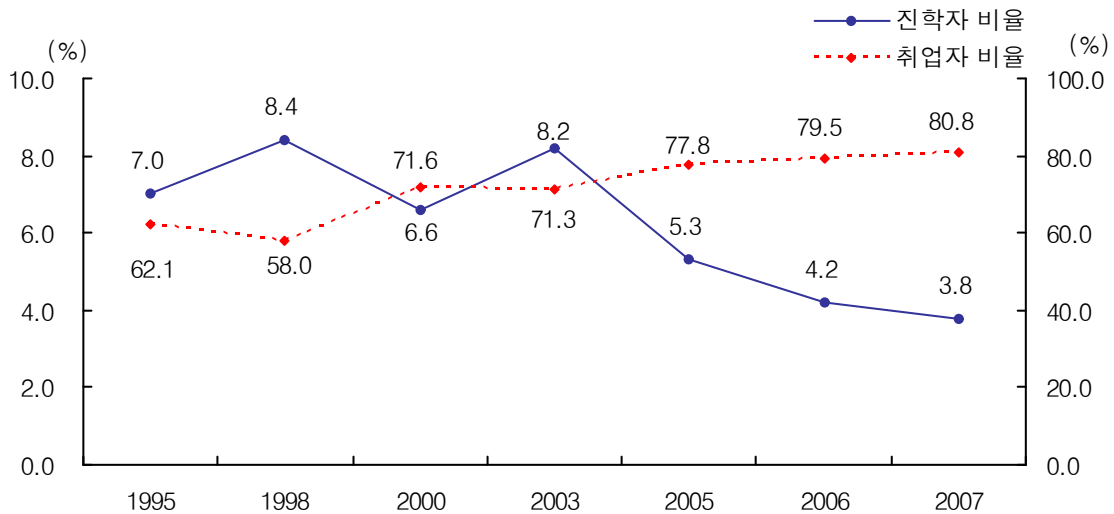


3.4.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2007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10명 중 약 8명은 취업

- 2007년 전문대학 졸업자 중 진학자 비율은 3.8%, 취업자 비율은 80.8%임
 - 2006년에 비해 진학자 비율은 0.4%p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비율은 1.3%p 상승하였음
 - 한편, 2007년 취업대상자(졸업자에서 진학과 군입대자를 제외) 중 취업자의 비율도 84.8%로 전년에 비해 0.9%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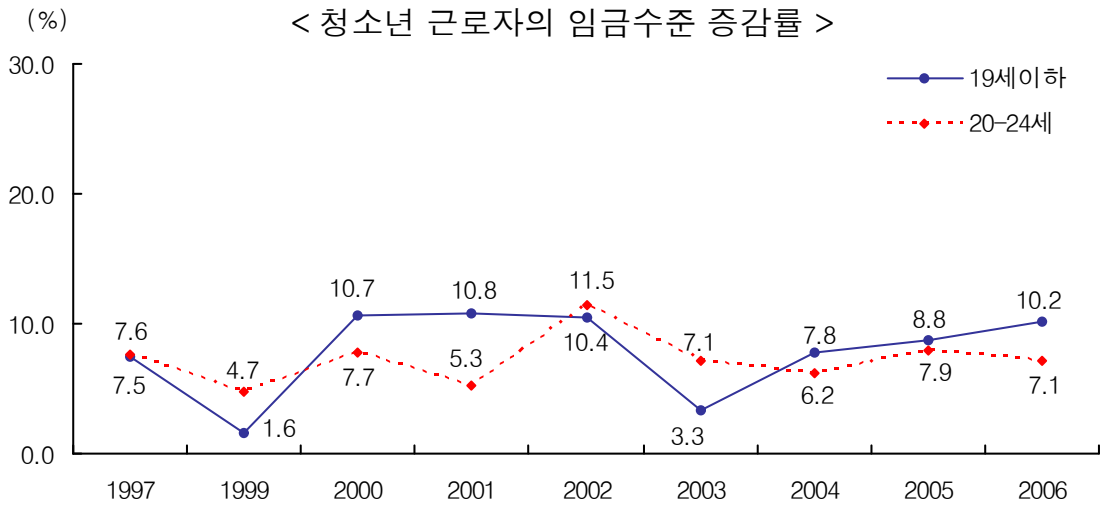
<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



3.5.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2006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9세 이하는 116만 7천원, 20~24세는 128만 5천원임**

- 2006년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 평균임금은 116만 7천원, 20~24세는 128만 5천원이었으며 임금상승률은 각각 10.2%, 7.1%였음
- 20~24세 청소년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이하 126만 2천원, 전문대졸 125만 5천원, 대졸이상의 경우 141만 6천원으로, 대졸이상의 임금수준이 전문대졸 임금수준보다 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 ¹⁾					증감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2000	715	833	830	823	917	10.7	7.7	7.2	10.3	6.9
2001	792	877	868	869	994	10.8	5.3	4.6	5.6	8.4
2002	874	978	970	945	1,112	10.4	11.5	11.8	8.7	11.8
2003	903	1,047	1,029	1,018	1,200	3.3	7.1	6.1	7.7	7.9
2004	973	1,112	1,095	1,098	1,218	7.8	6.2	6.4	7.9	1.5
2005	1,059	1,200	1,174	1,190	1,306	8.8	7.9	7.2	8.4	7.2
2006	1,167	1,285	1,262	1,255	1,416	10.2	7.1	7.5	5.5	8.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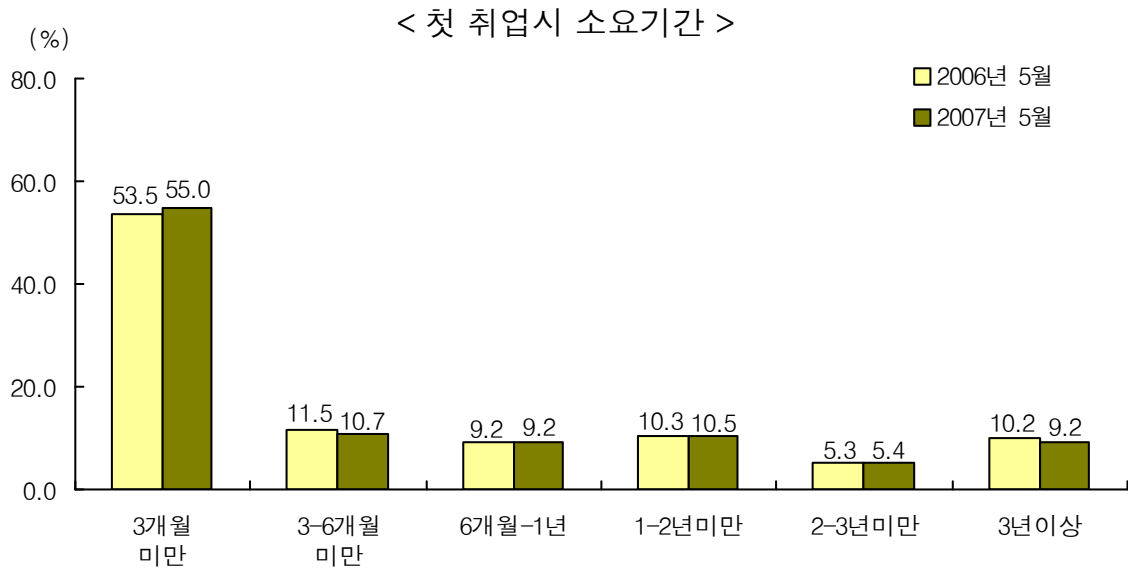
통계자료 81쪽

주 : 1) 매년 6월 기준의 정액 및 초과급여임(특별급여는 제외)

3.6.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시 소요기간

청년층(15~29세)이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임

- 2007년 5월 현재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가 졸업/중퇴 이후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5.0%로 가장 많았고,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9.2%로 나타났다
- 졸업/중퇴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자의 비중은 74.9%로 2006년 5월(74.2%)에 비해 0.7%p 상승하였고, 첫 취업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2006년보다 1개월 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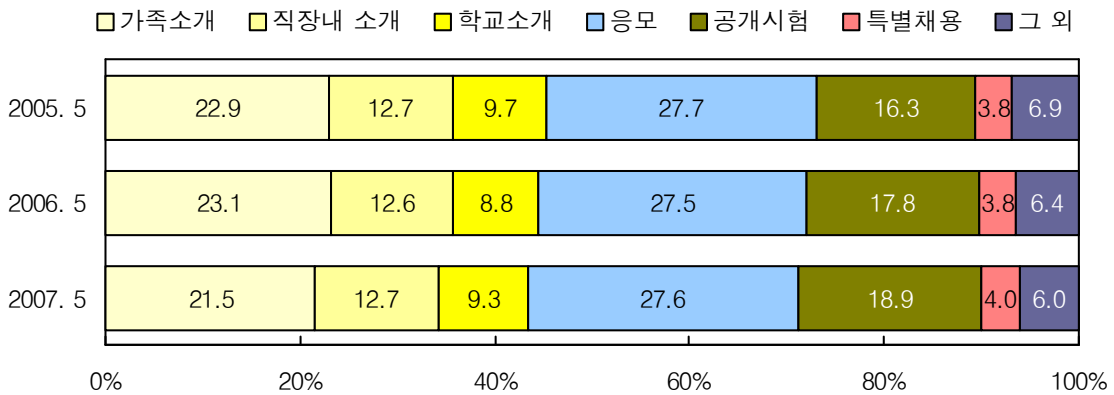


3.7.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청년층의 취업경로는 소개나 추천이 가장 많으나, 점차 감소 추세임

- 2007년 청년층 취업자(15~29세)의 주된 취업경로는 소개나 추천(43.5%)으로 이중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27.6%), 공개시험(18.9%) 순으로 나타났음
- 소개나 추천에 의한 취업은 2005년(45.3%) 이후 점차 감소 추세임
- 교육정도별 취업경로를 보면, 고졸이하는 소개나 추천(53.5%)과 신문/잡지 등의 응모(31.6%)가 높았으며, 대학졸업 이상도 소개나 추천(37.5%)이 가장 높지만, 공개시험(26.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



<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취업경로 >

(단위 : 천명, %)

	취업자	소개·추천	소개·추천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	공개 시험	특별 채용	그 외 ¹⁾
			가족/친지 소개(추천)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학교(학원) 선생님추천				
2005. 5	3,796	1,719	871	481	367	1,051	617	145	264
(구성비)	(100.0)	(45.3)	(22.9)	(12.7)	(9.7)	(27.7)	(16.3)	(3.8)	(6.9)
2006. 5	3,618	1,609	837	454	318	994	645	138	232
(구성비)	(100.0)	(44.5)	(23.1)	(12.6)	(8.8)	(27.5)	(17.8)	(3.8)	(6.4)
2007. 5	3,537	1,538	761	449	328	976	669	141	213
(구성비)	(100.0)	(43.5)	(21.5)	(12.7)	(9.3)	(27.6)	(18.9)	(4.0)	(6.0)
고졸이하	1,315	704	400	195	109	416	71	35	90
(구성비)	(100.0)	(53.5)	(30.4)	(14.8)	(8.3)	(31.6)	(5.4)	(2.7)	(6.8)
대졸이상	2,223	835	361	255	219	560	598	106	123
(구성비)	(100.0)	(37.5)	(16.2)	(11.5)	(9.8)	(25.2)	(26.9)	(4.8)	(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각년도

통계자료 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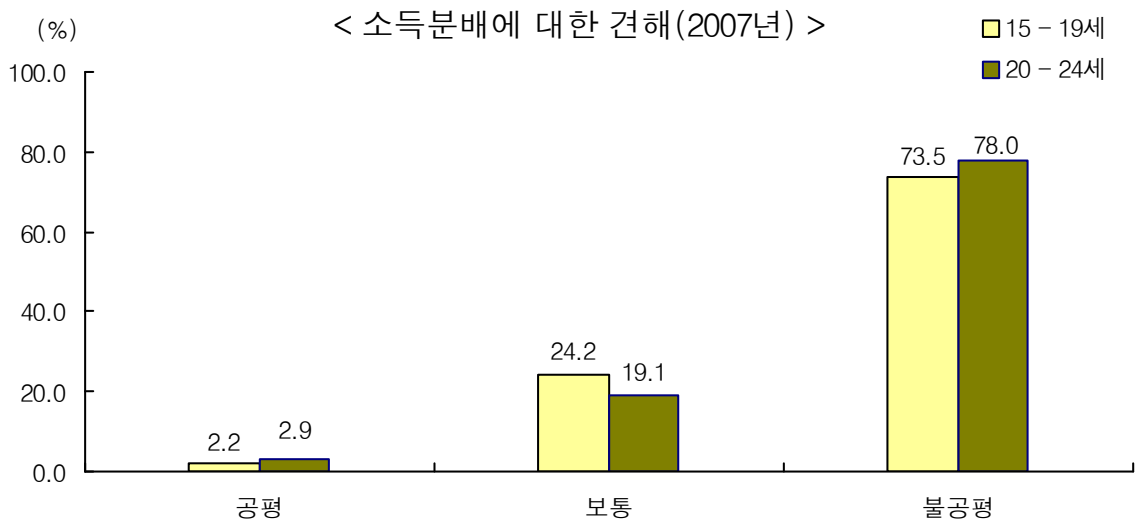
- 조사대상 :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대상

주 : 1)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박람회 등

3.8.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청소년(15~24세) 10명 중 약 7명 이상이
소득분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 2007년 15~19세 청소년의 73.5%, 20~24세 청소년의 78.0%가 소득분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 불공평하다’는 비율은 15~19세의 31.3%에 비해 20~24세는 36.5%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짐
- 반면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5~19세에서는 2.2%, 20~24세에서는 2.9%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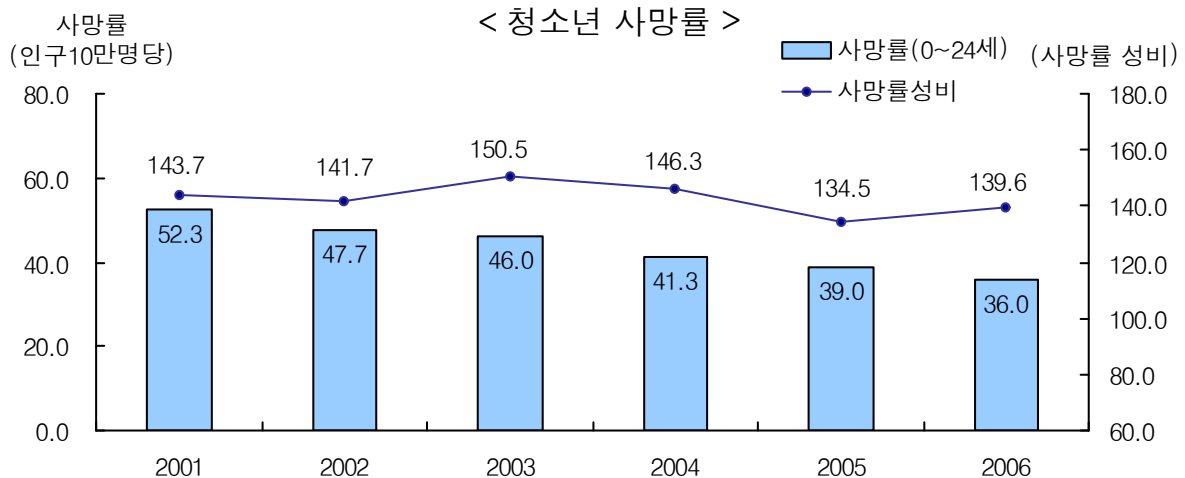


4. 보건

4.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6년 0~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당 36.0명으로
2001년 52.3명에 비해 16.3명 감소

- 2006년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6.0명으로 전년(2005년)도 39.0명에 비해 3.0명 감소하였음
- 사망률 성비는 2006년 139.6으로 전년에 비해 5.1p 높아졌음
- 2006년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의 사망률이 407.6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24세가 41.5명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

(단위 : 명)

	계		남자		여자		사망률 성 비 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률 (10만명당)	
2001	9,169	52.3	5,599	61.2	3,570	42.6	143.7
2005	6,351	39.0	3,787	44.4	2,564	33.0	134.5
2006	5,721	36.0	3,461	41.6	2,260	29.8	139.6
0세	1,709	407.6	959	441.6	750	371.1	119.0
1~ 4세	547	28.0	294	28.9	253	27.0	107.0
5~ 9세	499	15.6	290	17.4	209	13.7	127.0
10~14세	516	14.5	330	17.5	186	11.2	156.3
15~19세	957	30.2	643	38.5	314	20.9	184.2
20~24세	1,493	41.5	945	50.8	548	31.5	161.3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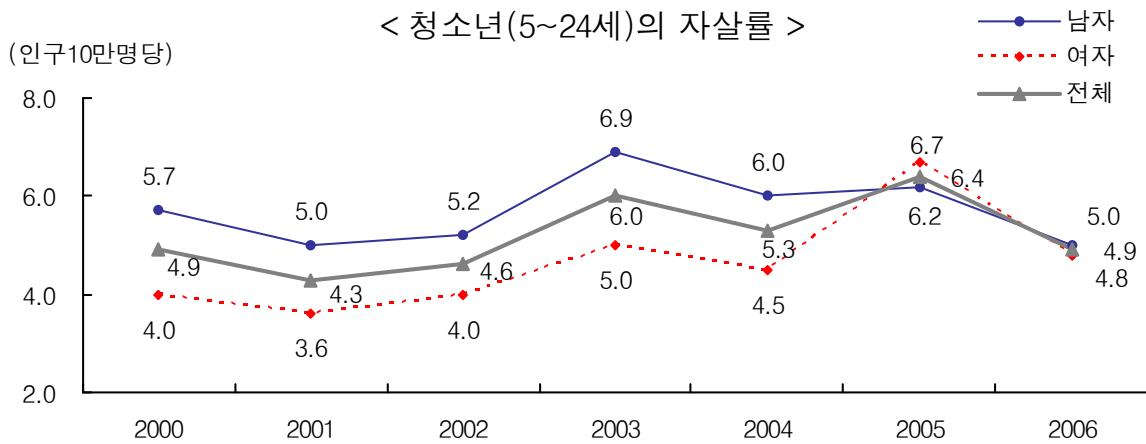
통계자료 92쪽

주 : 1) 사망률 성비 = (남자사망률/여자사망률) × 100

4.2. 청소년 자살률

2006년 하루 평균 1.8명의 청소년(5~24세)이 자살

- 2006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10~19세에서 2위(10만명당 3.5명), 20~29세에서는 1위(10만명당 13.8명)로 나타남(통계자료 93쪽 참고)
- 2000년 이후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다 2006년(4.9명)에는 전년(6.4명)대비 1.5명 감소
- 2006년 청소년(5~24세)의 자살률은 4.9명이며 남자 5.0명, 여자는 4.8명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20~24세의 자살률이 11.9명, 15~19세는 6.2명으로 15세 이후부터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음



< 청소년(5~24세)의 자살 사망자수 및 자살률 >

(단위 : 명)

	청소년의 자살(고의적 자해)					
	계		남자		여자	
	사망자수	자살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자살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자살률 (10만명당)
2002	659	4.6	388	5.2	271	4.0
2003	845	6.0	510	6.9	335	5.0
2004	738	5.3	439	6.0	299	4.5
2005	888	6.4	447	6.2	441	6.7
2006	664	4.9	357	5.0	307	4.8
5~ 9세	1	0.0	1	0.1	-	-
10~14세	35	1.0	14	0.7	21	1.3
15~19세	198	6.2	110	6.6	88	5.9
20~24세	430	11.9	232	12.5	198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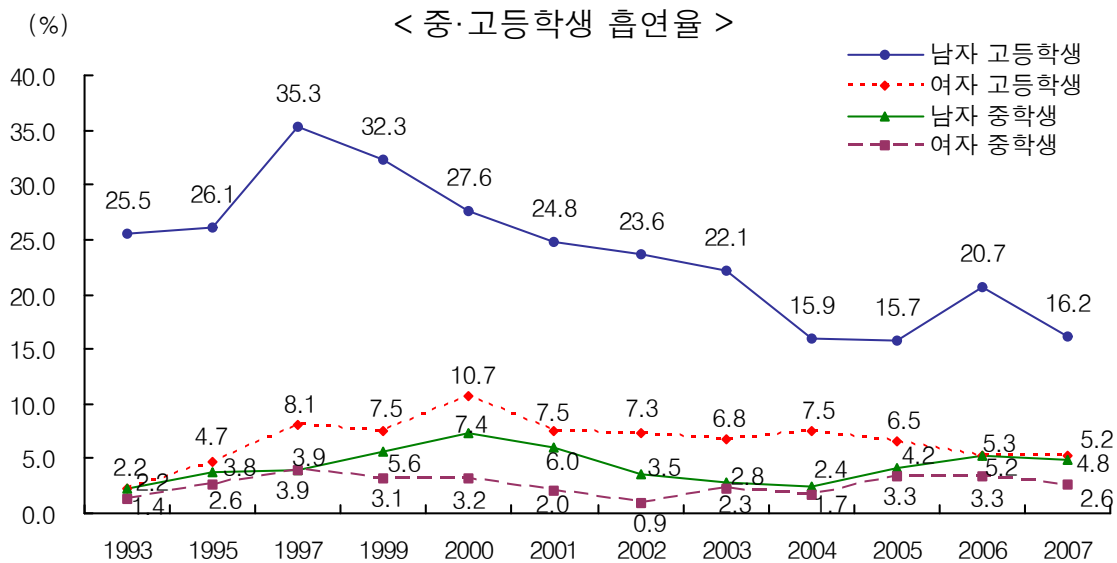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94쪽

4.3. 중·고등학생 흡연율

**2007년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6.2%,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5.2%임**

-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2000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임
 -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7년 35.3%를 정점으로 2007년 16.2%로, 여자 고등학생도 2000년 10.7%에서 2007년 5.2%로 감소하였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남자 2000년 7.4%에서 2007년 4.8%로, 여자 1997년 3.9%에서 2007년 2.6%로 감소함



< 중·고등학생 흡연율 >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자	2004	2.4	0.5	2.9	4.4	15.9	10.8	17.3	21.5
	2005	4.2	3.8	3.5	5.7	15.7	12.6	22.1	13.2
	2006	5.3	3.1	4.9	8.2	20.7	18.1	21.9	22.4
	2007	4.8	2.1	3.4	9.4	16.2	19.1	15.3	13.3
여 자	2004	1.7	2.1	1.3	1.7	7.5	9.2	8.5	4.9
	2005	3.3	2.9	2.7	3.5	6.5	5.2	8.1	5.9
	2006	3.3	1.9	3.2	4.7	5.2	6.3	4.7	4.8
	2007	2.6	1.8	3.9	2.5	5.2	6.6	3.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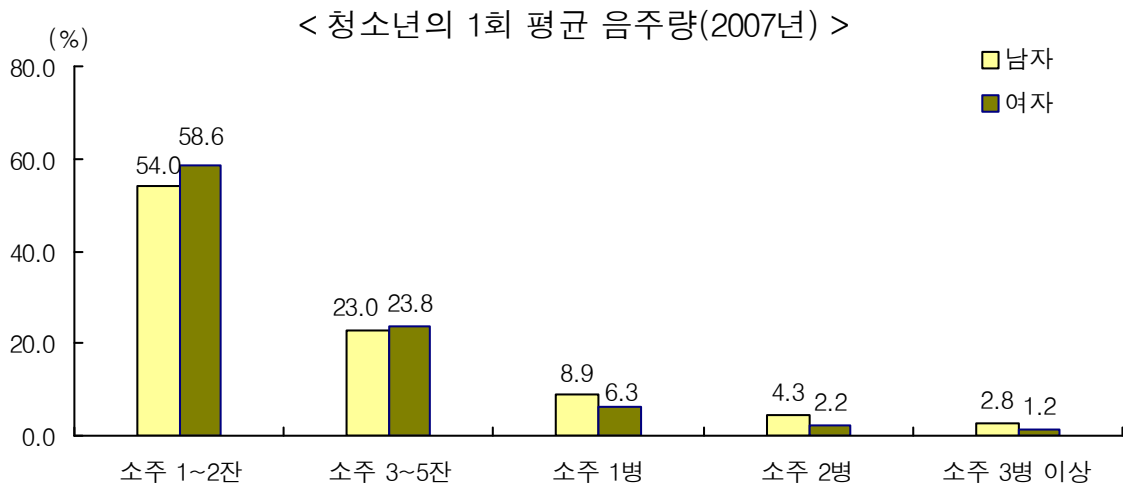
자료 :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자료 101쪽

4.4.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1회 평균 음주량

2007년 청소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5잔 이하가 79.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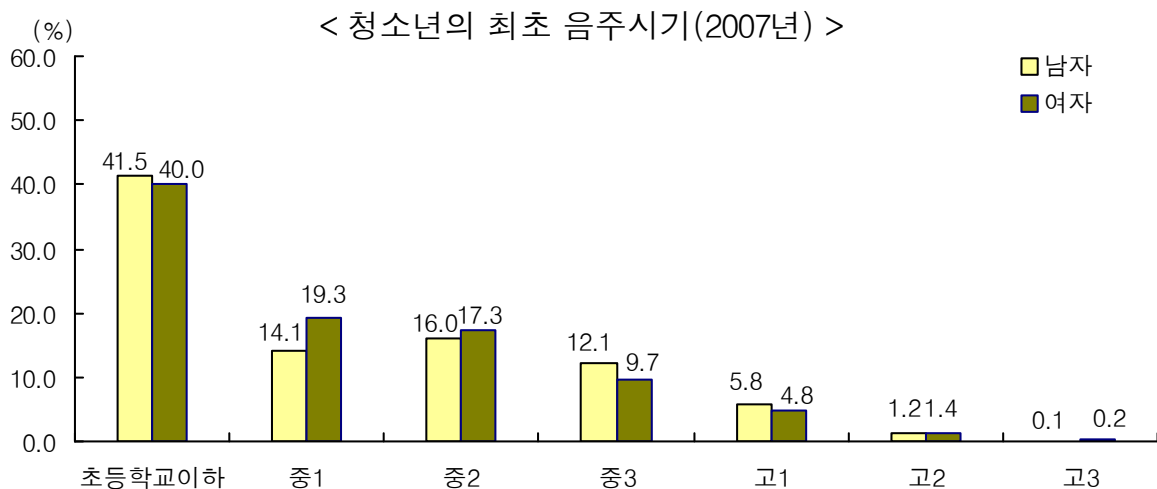
- 청소년 음주 경험자(65.2%)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 5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주 3~5잔이 23.4%, 소주 1병이 7.7%, 소주 2병 이상이 5.4%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은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16.0%로 여학생의 9.7%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27.0%로 중학생(5.7%)이나 일반계 고등학생(15.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4.5.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

청소년 음주 경험자(65.2%)의 절반 이상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

- 2007년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최초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이하가 41.0%, 중학교가 44.2%, 고등학교가 6.7%로 나타남
-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평균나이는 13.2세이며 남자가 13.0세, 여자가 13.4세로 남학생의 연령이 약간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최초 음주연령이 평균 12.7세로 대도시(13.1세)나 중소도시(13.3세)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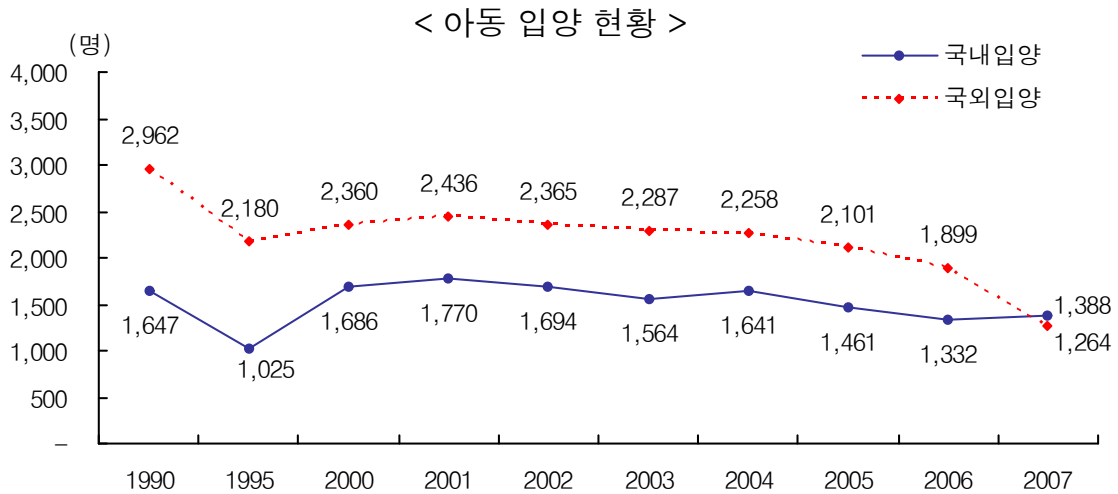


5. 복지

5.1. 아동 입양 현황

2007년 처음으로 아동입양의 국내입양률(52.3%)이
국외입양률(47.7%)을 앞질렀음

- 2001년 이후 입양 대상 아동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외 입양아수는 급속히 감소(2006년 1,899명에서 2007년 1,264명)한 반면, 국내 입양아수는 소폭 상승(2006년 1,332명에서 2007년 1,388명)함



< 아동 입양 현황 >

(단위 : 명, %)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1990	4,609	100.0	1,647	35.7	2,962	64.3
1995	3,205	100.0	1,025	32.0	2,180	68.0
2000	4,046	100.0	1,686	41.7	2,360	58.3
2001	4,206	100.0	1,770	42.1	2,436	57.9
2002	4,059	100.0	1,694	41.7	2,365	58.3
2003	3,851	100.0	1,564	40.6	2,287	59.4
2004	3,899	100.0	1,641	42.1	2,258	57.9
2005	3,562	100.0	1,461	41.0	2,101	59.0
2006	3,231	100.0	1,332	41.2	1,899	58.8
2007	2,652	100.0	1,388	52.3	1,264	47.7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현황' 각년도

통계자료 113쪽

5.2.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2007년 요보호아동 발생유형의 60.4%는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임

- 2007년 발생한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8,861명이었으며, 발생유형별로는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5,354명, ‘미혼모 아동’ 2,417명, ‘비행·가출·부랑아’ 748명 순으로 나타났음
- 2006년에 비해 요보호아동은 1.9% 감소하였으나, ‘기아’,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등은 각각 32.6%, 8.7% 증가하였음
-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보호가 36.6%, 가정보호가 63.4%를 차지하였음
- 보호아동수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위탁보호, 입양, 미혼모 시설보호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요보호아동¹⁾ 발생유형 >

(단위 : 명, %)

	계	발 생 유 형				
		기 아	미혼모 아 동	미 아	비행·가출· 부 랑 아	빈곤·실직· 학대 등 기타
2005	9,420 (100.0)	429 (4.6)	2,638 (28.0)	63 (0.7)	1,413 (15.0)	4,877 (51.8)
2006	9,034 (100.0)	230 (2.5)	3,022 (33.5)	55 (0.6)	802 (8.9)	4,925 (54.5)
2007	8,861 (100.0)	305 (3.4)	2,417 (27.3)	37 (0.4)	748 (8.4)	5,354 (60.4)
증감률 ²⁾	(-1.9)	(32.6)	(-20.0)	(-32.7)	(-6.7)	(8.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116쪽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6년 대비 2007년 증감비율임

< 요보호아동¹⁾ 보호내용 >

(단위 : 명, %)

	계	보 호 내 용					
		시 설 보 호			가 정 보 호		
		아동	장애아	미혼모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 가장책정
2005	9,420 (100.0)	4,769(50.6)	48(0.5)	1(0.0)	2,322(24.6)	1,873(19.9)	407(4.3)
2006	9,034 (100.0)	4,313(47.7)	53(0.6)	-	3,101(34.3)	1,259(13.9)	308(3.4)
2007	8,861 (100.0)	3,189(36.0)	39(0.4)	17(0.2)	3,378(38.1)	1,991(22.5)	247(2.8)
증감률 ²⁾	(-1.9)	(-26.1)	(-26.4)	-	(8.9)	(58.1)	(-19.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116쪽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6년 대비 2007년 증감비율임

5.3. 청소년 상담센터 현황

2006년 청소년 연간 상담자수는 1,560,607명이고,
상담내용은 대인관계, 진로, 성격, 비행이 각각 10%를 상회함

- 2006년 전국 청소년 상담센터는 142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자수는 1,560,607명으로 전년도 1,061,263명에 비해 499,344명 증가하였음
- 상담대상자 중 청소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508,828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435,736명(34.4%), 초등학생 244,957명(19.3%), 대학생 46,553명(3.7%) 순이었음
-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253,788명(16.3%), ‘진로’ 251,677명(16.1%), ‘성격’ 179,420명(11.5%), ‘비행’ 176,263명(11.3%), ‘학업/학교 부적응’ 123,837명(7.9%), ‘가족’ 99,928명(6.4%) 순으로 많았음

< 청소년 상담센터 현황 >

(단위 : 개소, 명, %)

	상담센터 (전국)	상담대상자별							성인 ¹⁾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무직		
2003	128	88,279	281,425	229,884	30,683	3,769	8,813	162,615	
2004	130	113,492	328,917	260,071	35,264	4,679	10,574	168,114	
2005	136	151,172	392,220	268,197	37,180	5,254	11,946	195,294	
2006	142	244,957	508,828	435,736	46,553	8,805	23,445	292,283	

	상담내용별									
	계	가족	비행	학업/ 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기타
2003	805,468	62,154	26,383	52,278	139,729	61,168	196,902	170,209	28,126	68,519
2004	921,111	56,161	31,804	53,460	203,509	59,225	235,305	154,534	27,885	99,228
2005	1,061,263	68,559	67,814	72,216	177,350	49,269	265,184	179,896	37,103	143,872
2006	1,560,607	99,928	176,263	123,837	251,677	71,224	253,788	179,420	39,395	365,075
구성비	100.0	6.4	11.3	7.9	16.1	4.6	16.3	11.5	2.5	23.4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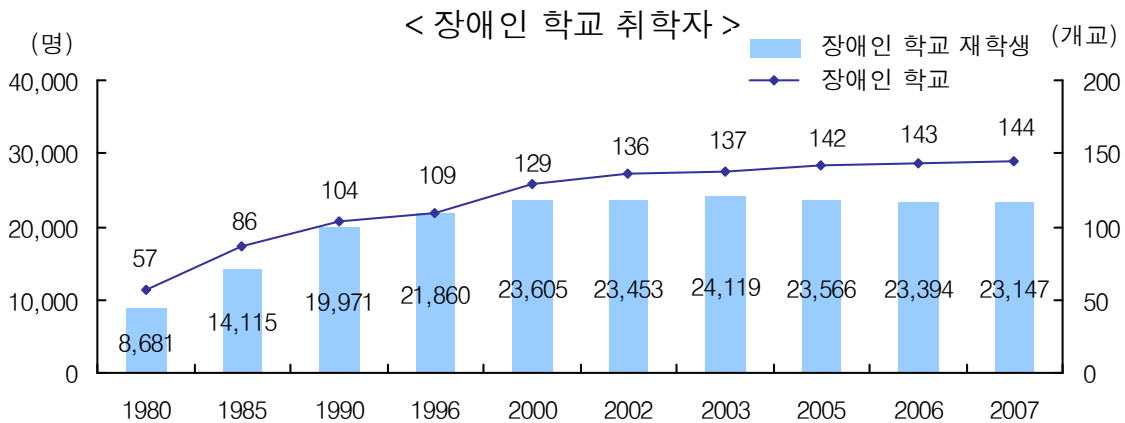
통계자료 119쪽

주 : 1) 청소년이 아닌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일반인, 기타 포함

5.4. 장애인 학교 취학자

장애인 취학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전체의 68.6% 임

- 2007년 장애인 학교는 144개교로 총 재학생은 23,147명임
- 재학생 장애유형별 구성비는 ‘정신지체’가 68.6%로 가장 많고, ‘지체부자유’ 12.2%, ‘정서장애’ 6.5%, ‘청각장애’ 6.4%, ‘시각장애’ 6.3% 순임
- 전년대비 총 재학생이 감소(-1.1%)함에 따라 청각장애인 취학자는 6.3%, 지체부자유인 취학자는 4.3%, 시각장애인 취학자는 2.6%의 감소율을 보임
- 2000년 대비 장애인 학교수는 11.6% 증가한 반면, 총 재학생수는 1.9% 감소하였음



< 장애인 학교 취학자 현황 >

(단위 : 개교, 명, %)

	학교수	재학생 계	장애유형별 재학생 수 (명)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1990 ¹⁾	104	19,971 (100.0)	1,540 (7.7)	4,423 (22.1)	2,530 (12.7)	11,478 (57.5)	-
2000	129	23,605 (100.0)	1,253 (5.3)	2,469 (10.5)	2,889 (12.2)	16,994 (72.0)	-
2005	142	23,566 (100.0)	1,454 (6.2)	1,803 (7.7)	3,141 (13.3)	15,724 (66.7)	1,444 (6.1)
2006	143	23,394 (100.0)	1,502 (6.4)	1,583 (6.8)	2,945 (12.6)	15,813 (67.6)	1,551 (6.6)
2007	144	23,147 (100.0)	1,463 (6.3)	1,484 (6.4)	2,817 (12.2)	15,887 (68.6)	1,496 (6.5)
증감률 ²⁾	(0.7)	(-1.1)	(-2.6)	(-6.3)	(-4.3)	(0.5)	(-3.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자료 122쪽

주 : 1) 1990년 자료는 장애유형에서 「기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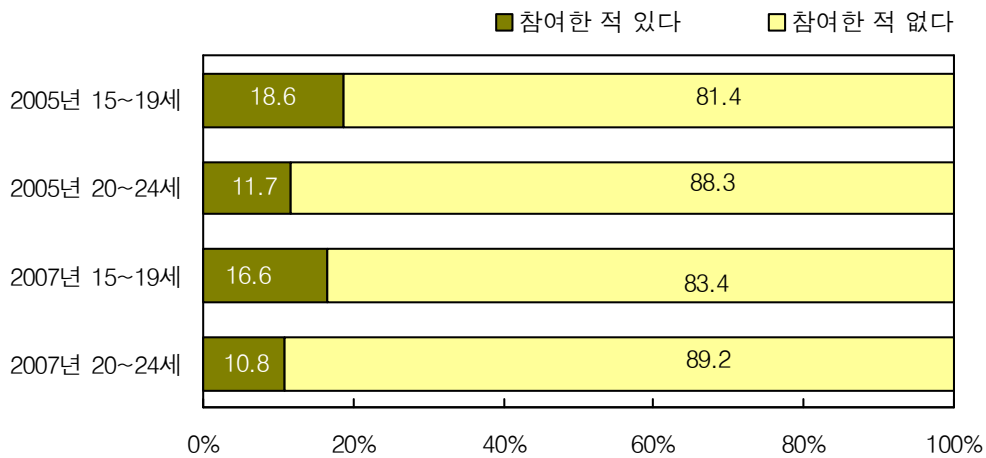
2) 2006년 대비 2007년 증감비율임

5.5.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율은 13.8%임

- 15~19세 청소년의 16.6%, 20~24세의 10.8%가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음
 - 2005년과 비교하면 15~19세는 2.0%p, 20~24세는 0.9%p 감소
- 봉사활동의 유형은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84.4%로 대다수임

<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



<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

(단위 : %)

	계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복지시설	일반가정	병원	기타	
< 2005 >							
15세 이상	100.0	8.5	66.8	26.2	13.0	5.4	91.5
15~19세	100.0	18.6	84.9	10.8	10.2	3.0	81.4
20~24세	100.0	11.7	72.9	16.0	14.3	6.7	88.3
< 2007 >							
15세 이상	100.0	8.2	73.9	20.1	14.3	4.0	91.8
15~24세	100.0	13.8	84.4	11.0	11.7	3.0	86.2
15~19세	100.0	16.6	87.0	8.4	11.0	1.4	83.4
20~24세	100.0	10.8	79.9	15.3	12.9	5.7	89.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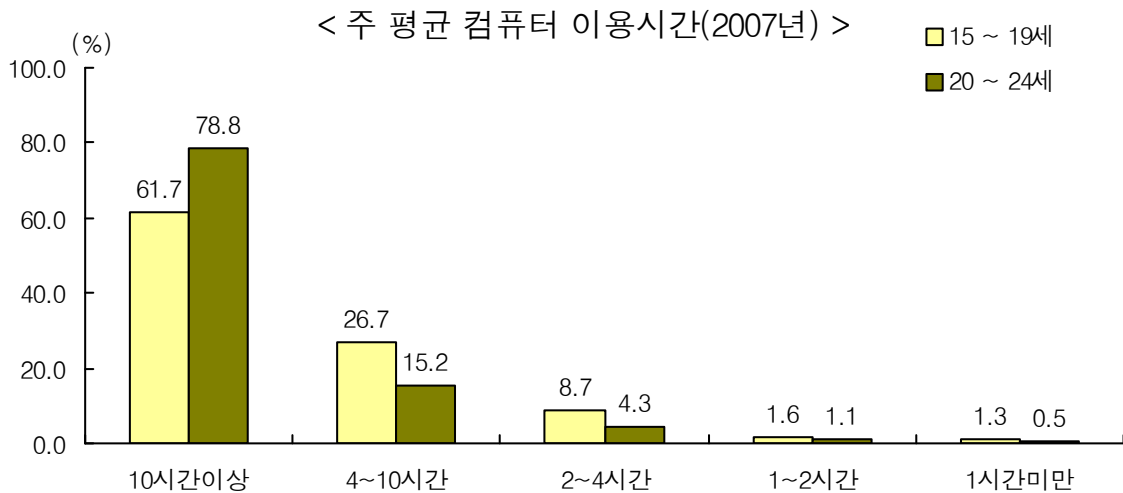
통계자료 123쪽

6. 교통과 정보화

6.1. 컴퓨터 이용시간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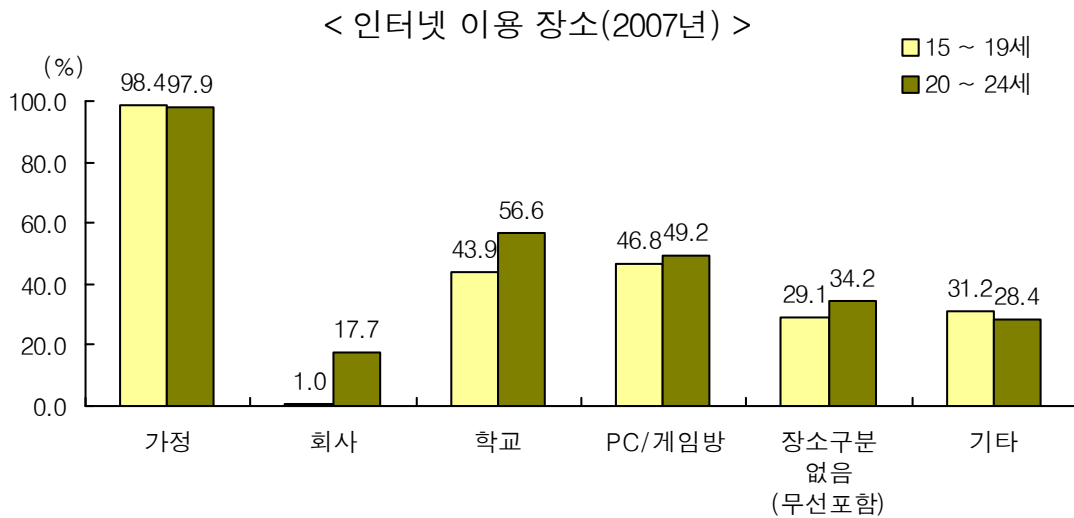
- 2007년 15~19세, 20~24세 청소년의 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각각 13.8시간(약 1일 2시간), 19.1시간(약 1일 2.7시간)으로 나타났음
 - 6세 이상 인구 전체에서도 '10시간 이상'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으며, 주 평균시간은 16.0시간으로 나타남
- 전년(2006년)과 비교하면 15~19세, 20~24세 청소년 모두 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이 0.2시간씩 줄었음



6.2. 인터넷 이용장소

청소년(15~24세)의 인터넷 이용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PC방/게임방'이나 '학교'로 나타남

- 2007년 15~19세와 20~24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장소(복수응답)는 '가정'이 각각 98.4%, 97.9%로 가장 많았고, 15~19세에서는 'PC방/게임방'(46.8%)이 20~24세에서는 '학교'(56.6%)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07년 15~19세와 20~24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장소를 보면 학교가 각각 43.9%, 56.6%를 차지하여, 2006년에 비해 각각 7.4%p, 10.6%p 증가함



< 인터넷 이용 장소¹⁾ >

(단위 : %)

	인터넷 이용자 ²⁾	가정	회사	학교	PC방/ 게임방	장소구분없음 (무선포함)	기타 ³⁾
< 2006 >							
6세 이상	100.0	97.0	30.7	14.0	22.6	9.8	12.5
15~19세	100.0	99.7	0.6	36.5	40.4	20.3	25.8
20~24세	100.0	98.7	22.8	46.0	49.4	25.7	22.9
< 2007 >							
6세 이상	100.0	96.2	33.9	15.8	21.4	17.1	15.0
15~19세	100.0	98.4	1.0	43.9	46.8	29.1	31.2
20~24세	100.0	97.9	17.7	56.6	49.2	34.2	28.4

자료 :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자료 134쪽

주 : 1) 복수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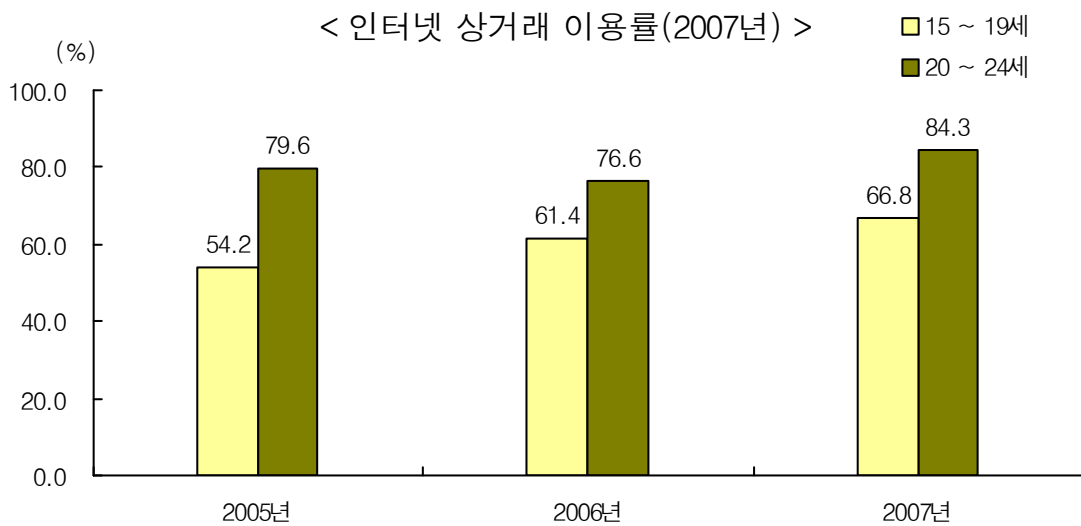
2) 인터넷을 한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 대상임

3) 다른 사람의 집, 학교 외 기타교육장소, 비상업적 공공접속시설 포함

6.3. 인터넷 상거래(인터넷쇼핑) 이용여부

청소년(15~24세)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률은 계속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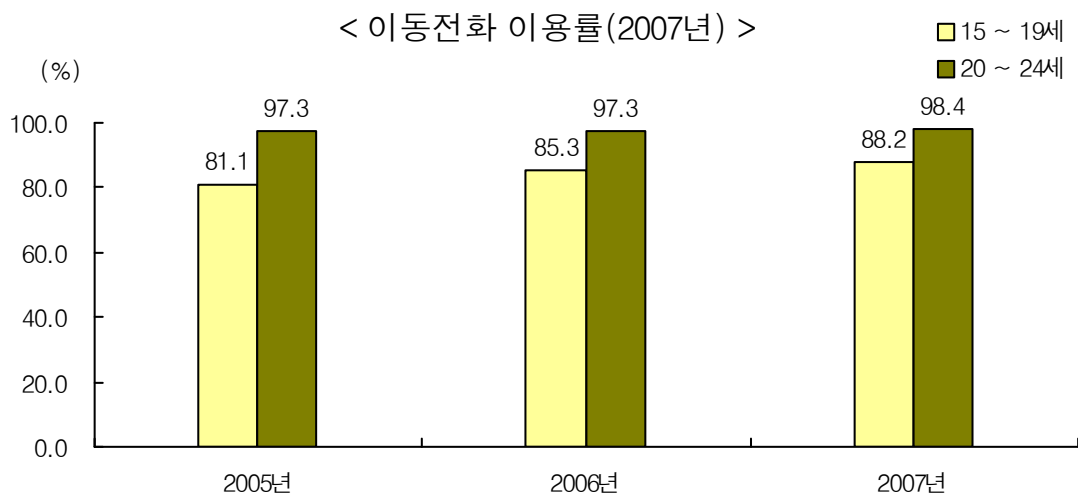
- 2007년 청소년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률(최근 1년 이내)은 15~19세는 66.8%, 20~24세는 84.3%로 나타남
- 2006년과 비교하면 인터넷 상거래 이용률은 15~19세는 61.4%에서 66.8%로, 20~24세는 76.6%에서 84.3%로 증가하였음



6.4. 이동전화 이용 여부

청소년(15~24세)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동전화를 이용함

- 2007년 청소년의 이동전화 이용률은 15~19세에서 88.2%, 20~24세에서 98.4%로 나타남
- 2006년과 비교하면 이동전화 이용률은 15~19세는 85.3%에서 88.2%로 2.9%p, 20~24세는 97.3%에서 98.4%로 1.1%p 증가하였음



7. 문화와 여가·사회참여

7.1.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청소년(15~24세)은 여가활동으로
‘TV시청’, ‘컴퓨터게임/인터넷’을 주로 함

- 2007년 청소년(15~24세)들의 여가활동 방법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15~19세의 경우 컴퓨터 게임/인터넷(25.1%), TV시청(23.3%)이 높으나, 20~24세에서는 TV시청(21.7%), 사교 관련활동(18.5%)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5~19세(28.0%)보다 20~24세(41.0%)에서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실제 여가활동 중 여행의 비율이 15~19세에서는 0.7%, 20~24세에서는 2.6%로 매우 낮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임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 2004 〉												
15세 이상	26.1	5.2	2.3	4.8	6.9	1.0	1.8	-	12.1	16.1	11.4	12.2
15~19세	22.9	0.5	3.6	4.2	29.7	1.3	8.2	-	0.9	12.2	13.5	3.1
20~24세	21.5	3.2	8.1	4.3	17.0	1.7	3.3	-	2.5	12.8	22.2	3.6
〈 2007 〉												
15세 이상	27.7	5.1	2.2	5.2	6.1	1.1	2.9	10.2	13.8	15.9	9.0	0.7
15~24세	22.6	1.6	5.2	4.4	20.6	1.0	9.9	5.8	1.5	12.1	14.5	0.8
15~19세	23.3	0.7	3.0	4.2	25.1	1.2	13.0	5.5	0.7	11.6	10.8	0.9
20~24세	21.7	2.6	7.7	4.7	15.8	0.8	6.6	6.2	2.3	12.6	18.5	0.6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자료 144쪽
 주 : 1) 2007년 봉사활동(2007년 0.2%) 포함, 2004년 봉사활동(0.9%), 가족과 함께(9.3%) 포함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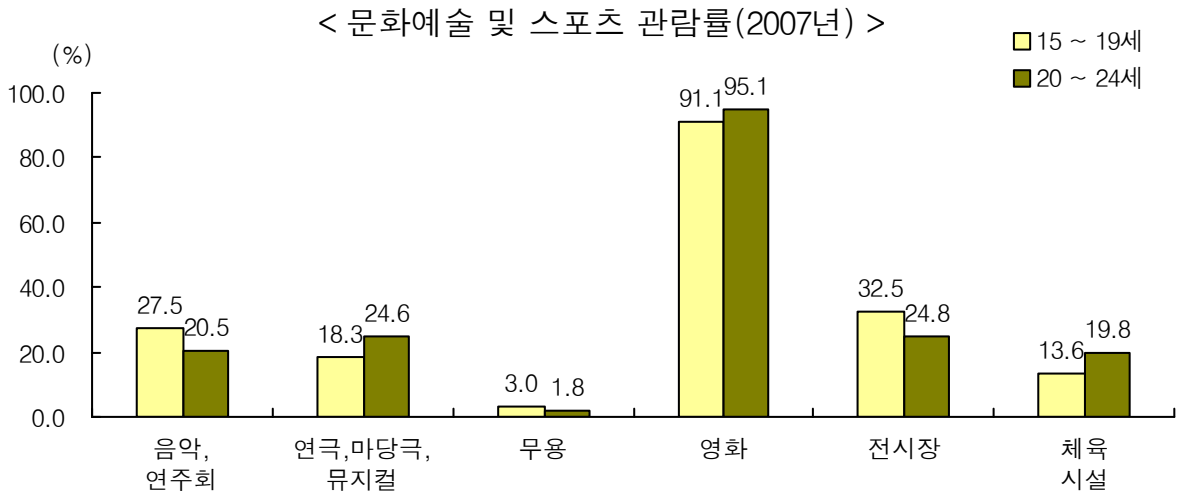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 2007 〉												
15세 이상	4.6	43.7	7.2	10.3	2.0	5.0	8.7	4.9	1.3	5.2	4.8	2.2
15~24세	3.3	34.2	13.5	11.9	7.2	5.2	15.3	1.6	0.1	2.9	4.1	0.7
15~19세	3.7	28.0	15.0	13.1	10.4	5.9	13.1	1.5	0.1	3.3	5.1	0.7
20~24세	2.8	41.0	11.9	10.5	3.7	4.4	17.6	1.8	0.1	2.5	3.0	0.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년 통계자료 149쪽
 주 : 1) 기타에 봉사활동 포함됨

7.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청소년(15~24세)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78.3%이고,
이 중 영화관람 경험이 93.1%로 가장 높음

- 2007년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에서 76.6%, 20~24세에서는 80.2%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영화관이 93.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전시장(28.7%), 음악/연주회(24.0%), 연극/마당극/뮤지컬(21.4%)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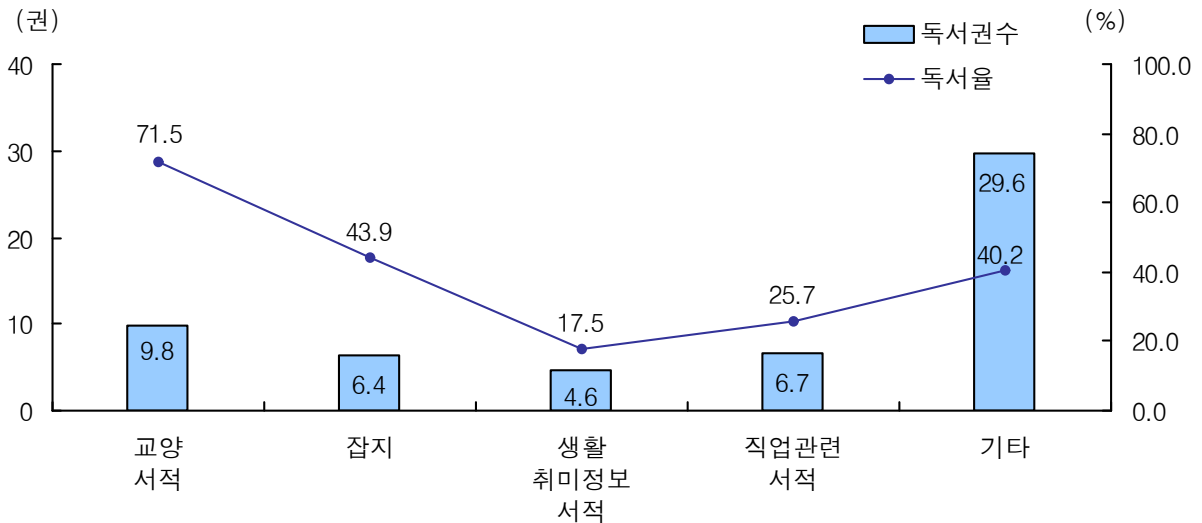


7.3. 독서율 및 평균 독서권수

청소년(15~24세)의 독서율은 79.3%이고,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24.3권임

- 2007년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에서 78.1%, 20~24세에서 80.5%로 15세 이상 전체 평균(58.9%)보다 높게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는 교양서적의 독서율이 71.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잡지류가 43.9%로 높게 나타남
- 평균 독서권수는 교양서적이 9.8권, 잡지류가 6.4권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항목의 독서권수가 29.6권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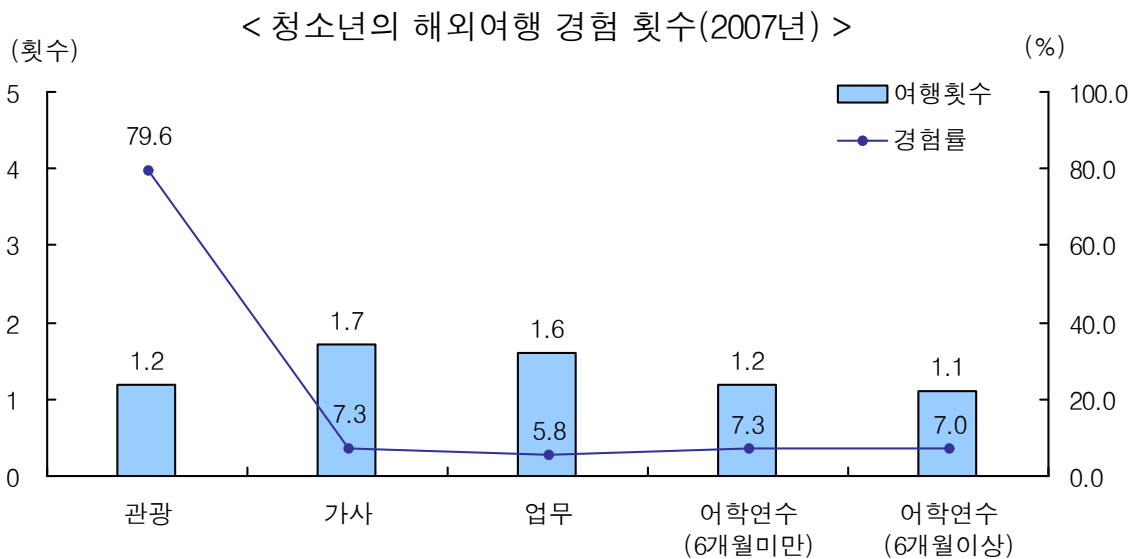
< 청소년의 독서율 및 평균 독서권수(2007년) >



7.4. 해외여행 경험 횟수

청소년(15~24세)의 1년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9.9%이고,
그 중 관광목적이 79.6%, 어학연수 14.3%임

- 2007년 청소년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15~19세는 7.3%, 20~24세는 12.7%로 나타남
- 해외여행 목적별로는 관광이 79.6%로 가장 높으며, 어학연수(14.3%), 가사 및 가족/친지 방문 등(7.3%), 업무(5.8%)순으로 나타남
- 관광을 제외하고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15~19세의 경우는 가사(6.9%),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6.6%)가 높게 나타났으며, 20~24세에서는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8.9%)와 업무(8.4%)가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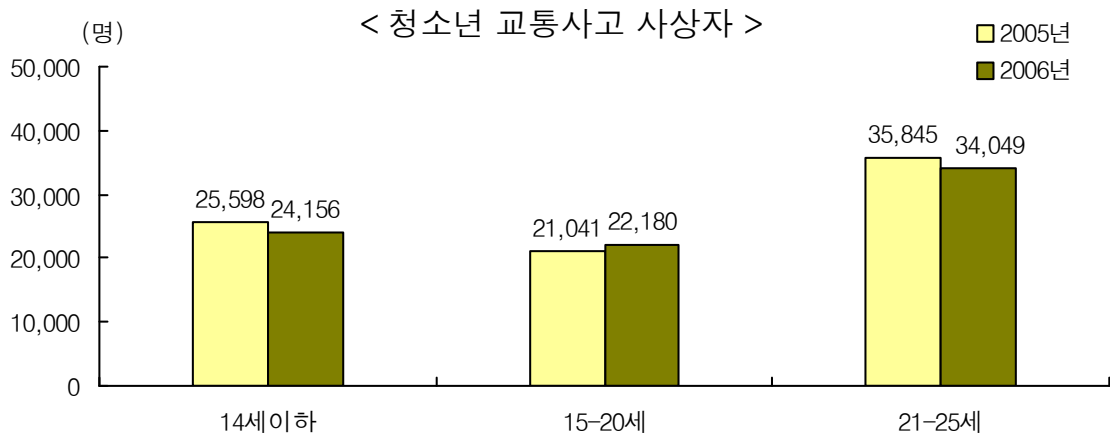


8. 안전

8.1. 청소년 교통사고

200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세 이하가 23.2%를 차지

- 2006년 교통사고로 인한 25세 이하 사상자는 80,385명(성별 불명자 4명 포함)으로 전체 교통사고자 346,556명의 23.2%를 차지함
 - 이 중 연령별로 보면 21~2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로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남자의 비율이 14.1%로 여자 9.1%보다 5.0%p 높음
- 2005년(82,484명)과 비교하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2.5% 감소하였음
 - 연령별로는 14세 이하가 5.6%, 21~25세가 5.0% 감소하였으며, 15~20세는 5.4% 증가하였음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 명, %)

	2005년	2006년	구성비	증감률 ¹⁾	사망자	부상자
전 체	348,609	346,556	(100.0)	-0.6	6,327	340,229
남자(25세 이하)	49,394	48,856	(14.1)	-1.1	661	48,195
여자(25세 이하)	33,089	31,525	(9.1)	-4.7	256	31,269
6세 이하 ²⁾	12,684	8,915	(2.6)	-29.7	125	8,790
7~14세 ²⁾	12,914	15,241	(4.4)	18.0	151	15,090
15~20세	21,041	22,180	(6.4)	5.4	289	21,891
21~25세	35,845	34,049	(9.8)	-5.0	356	33,69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통계자료 157쪽

주 : 1) 2005년 대비 2006년의 증감비율임

2) 2005년 자료는 7세 이하와 8~14세 이하로 구분됨

3) 연령별 자료에는 성별 불명자(2005년 1명, 2006년 4명)가 포함됨

8.2.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사례는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 200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8,903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5,202건으로 나타남
- 2001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2.2배 가량 증가하였고(4,133건에서 8,903건), 아동학대 사례는 2.5배 가량 증가하였음(2,105건에서 5,202건)
- 발생유형별로는 방임이 2,035건으로 가장 높으며, 중복학대 유형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604건), 신체학대(439건), 성학대(249건), 유기(76건) 순으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 상담현황 >

(단위 : 건)

	아동학대 신고건수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아동학대 사례		잠재 ¹⁾ 위험사례	일반 사례
					응급아동 학대사례	단순아동 학대사례		
2001	4,133	2,606	1,527	-	-	-	313	-
2002	4,111	2,946	1,165	2,946	310	2,168	298	170
2003	4,983	3,536	1,447	3,536	411	2,510	343	272
2004	6,998	4,880	2,118	4,880	592	3,299	434	555
2005	8,000	5,761	2,239	5,761	605	4,028	427	701
2006	8,903	6,452	2,451	6,452	591	4,611	397	853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통계자료 160쪽

주 : 1) 2001년 무혐의 사례 자료임

< 아동학대 발생유형 >

(단위 : 건)

	계	피해아동 성별		학대유형					
		남자	여자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 학대
2001	2,105 ¹⁾	1,033	1,067	476	114	86	672	134	623
2002	2,478	1,332	1,146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1,461	1,460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1,964	1,927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2,353	2,280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2,641	2,561	439	604	249	2,035	76	1,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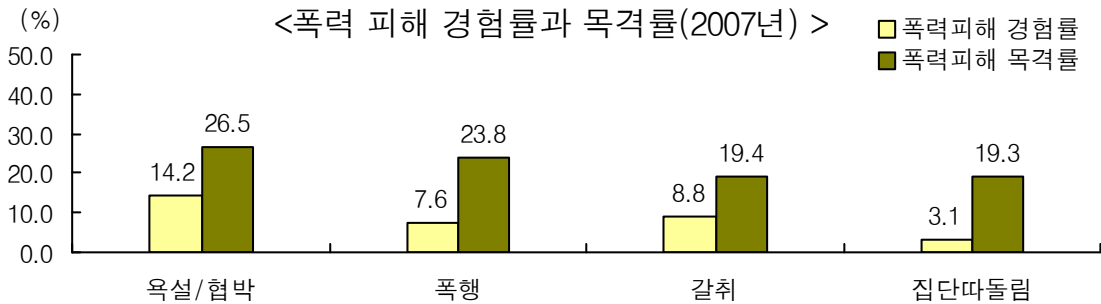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통계자료 160쪽

주 : 1) 성별 파악안된 인원 5명 포함되어 있음

8.3.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급우·또래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2명(21.5%)임

- 지난 1년간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중·고등학생은 78.5%로,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2명(21.5%)은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급우·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은 욕설/협박이 14.2%, 금품갈취가 8.8%, 폭행이 7.6%, 집단따돌림이 3.1%로 나타났음
 - 반면에 본인이 아닌 “주변에서 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험”은 욕설/협박이 26.5%, 금품갈취가 19.4%, 폭행이 23.8%, 집단따돌림이 19.3%로 나타나 실제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률보다 10%p 이상씩 높게 나타났음
- 폭력 피해 후 친구(7.6%), 가족(6.2%), 선생님(4.4%) 순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5.5%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과 목격(2007년) >

(단위 : %)

	경험률	1년내				전혀없다	무응답	주변의 목격 경험 ¹⁾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주3회 이상			
욕설 / 협박	14.2	8.7	2.3	1.3	1.9	85.7	0.1	26.5
폭행	7.6	5.0	1.1	0.6	0.9	92.3	0.2	23.8
금품갈취	8.8	6.1	1.6	0.6	0.6	91.0	0.1	19.4
집단 따돌림	3.1	1.8	0.4	0.3	0.6	96.7	0.2	19.3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년 통계자료 166~169쪽

주 : 1) 본인의 경험이 아닌 주변에서 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험률임

< 폭력을 당한 후 알린 사람(2007년) >

(단위 : %)

	계	피해경험 없다	폭력피해를 당한 후 알린 사람 ¹⁾							
			알리지 않음	가족	선생님	친구	상담실/전문기관	경찰신고	기타	무응답
전체	100.0	78.5	5.5	6.2	4.4	7.6	0.4	1.1	1.0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년

통계자료 1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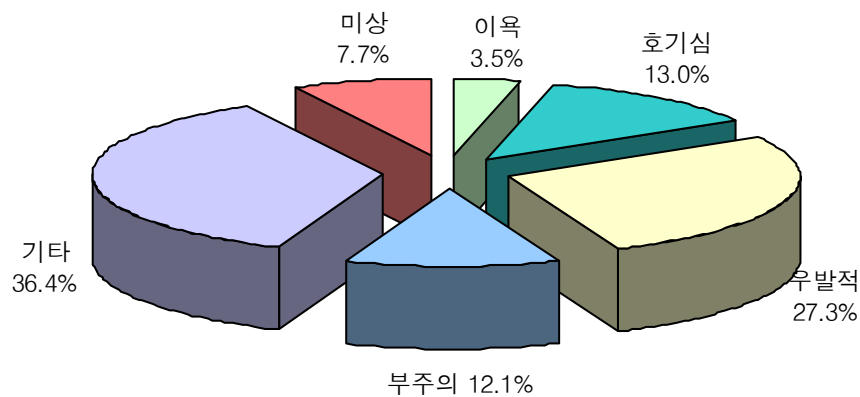
주 : 1) 피해경험 후 알린 사람은 복수응답임

8.4.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주로
‘우발적’ 27.3%, ‘호기심’ 13.0%로 나타남

- 2006년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 27.3%, ‘호기심’ 13.0%, ‘부주의’ 12.1%, ‘이욕’ 3.5% 순으로 나타났음
- 형법범의 경우는 ‘우발적’ 동기 38.7%, ‘호기심’ 17.5%, ‘이욕’ 5.0% 순으로 나타났음

<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2006년) >



<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

(단위 : %)

	계	이 욕 ²⁾	호기심	우발적	부주의	기 타 ³⁾	미 상
2004	100.0	3.5	9.0	29.3	15.6	37.8	4.8
2005	100.0	3.7	10.9	29.7	12.3	36.5	6.9
2006	100.0	3.5	13.0	27.3	12.1	36.4	7.7
형법범	100.0	5.0	17.5	38.7	0.7	31.6	6.5
특별법범 ¹⁾	100.0	0.9	5.2	7.8	31.7	44.6	9.8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통계자료 173쪽

주 : 1)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병역법, 도로교통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

2) 이욕 :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및 사치심, 치부, 기타 등 포함

3) 기타 :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유혹, 현실불안, 기타 등 포함

Ⅲ. 통 계 표

1. 인구와 가족

-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1.2 남자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1.3 여자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1.4 학령인구
- 1.5 청소년 장래가구
- 1.6 청소년의 기대여명
- 1.7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 1.8 다문화 청소년 현황
- 1.9 시도별 부양비 추이
- 1.10 청소년의 혼인(남, 여)
- 1.11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1.12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 1.13 가족관계 만족도
 - 1.13.1 자기 부모와의 관계
 - 1.13.2 형제, 자매와의 관계
- 1.14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견해
- 1.15 청소년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 교육

- 2.1 진학률
- 2.2 취학률
- 2.3 학업중단율
- 2.4 교원 1인당 학생수
- 2.5 학급당 학생수
- 2.6 학생 1인당 건물, 교지 및 체육장 면적
- 2.7 학교급별 컴퓨터 보유현황
- 2.8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
- 2.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2.10 사교육 현황
 - 2.10.1 학교급 및 특성별 사교육 참여율
 - 2.10.2 학교급 및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
 - 2.10.3 학교급 및 특성별 사교육 참여시간
- 2.11 초등학생의 주된 학습방법
- 2.12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
 - 2.12.1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과 함께 지내는 사람
 - 2.12.2 방과 후 시간의 활용
- 2.1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놀이
 - 2.13.1 방과 후 놀이방법
 - 2.13.2 방과 후 놀이장소

3. 노동

-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 3.2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
- 3.3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
- 3.4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3.5 청소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 3.6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및 활동상태별 현황
- 3.7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 3.8 전문대학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 3.9 대학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 3.10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 3.11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시 소요기간
- 3.12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 3.13 청년층 취업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
- 3.1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직장 이직사유
- 3.15 아르바이트
 - 3.15.1 아르바이트 경험률 및 업종
 - 3.15.2 청소년 취업불가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 3.16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 3.17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 3.18 소득 만족도

3.19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3.20 소비 생활 만족도

4. 보건

4.1. 청소년 신장(6~17세)

4.2 청소년 체중(6~17세)

4.3 청소년 가슴둘레(6~17세)

4.4 청소년 신체중량지수(6~17세)

4.5 청소년의 사망

4.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4.5.2 청소년 사망원인

4.5.2 청소년 자살

4.6 청소년 영양섭취량

4.6.1 청소년의 식품군별 평균 섭취량

4.6.2 청소년의 평균 영양소 섭취량

4.7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평가

4.8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4.9 청소년 건강관리 방법

4.10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도

4.11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생각 여부

4.12 청소년의 흡연

4.12.1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변화

4.12.2 학교 유형별 흡연율

4.12.3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흡연율

4.12.4 흡연 가족구성원 유무에 따른 학생의 흡연여부

4.12.5 중·고등학생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4.12.6 중·고등학생의 흡연 해독에 대한 지식 변화

4.12.7 흡연에 대한 태도 변화

4.12.8 흡연 학생의 금연의사 변화

4.12.9 금연 이유

4.13 청소년의 음주

4.13.1 음주횟수

4.13.2 월 음주횟수

4.13.3 음주량

- 4.13.4 음주장소
- 4.13.5 최초 음주이유
- 4.13.6 최초 음주시기
- 4.13.7 음주예방교육

5. 복지

- 5.1 청소년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구성비
- 5.2 아동복지 시설수 및 보호아동 현황
- 5.3 아동입양 기관수 및 입양아 수
- 5.4 아동상담소 및 상담실적
- 5.5 요보호 아동발생 및 보호내용
- 5.6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5.7 청소년 지도사 양성현황
- 5.8 청소년 상담사 양성현황
- 5.9 청소년 상담센터
 - 5.9.1 설치현황 및 상담실적
 - 5.9.2 상담대상 및 상담내용
- 5.10 특수보육시설 설치 현황
- 5.11 장애유형별 장애인 출현율
- 5.12 장애인의 장애 관련 최초 진단 시기
- 5.13 장애인 취학자
- 5.14 봉사활동
 - 5.14.1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 5.14.2 장애인을 위한 향후 봉사활동 의사
- 5.15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5.16 장애인에 대한 견해
- 5.17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5.18 결식아동 비율

6. 교통과 정보화

- 6.1 학교별 통학 소요시간
- 6.2 학교별 통학 이용수단
- 6.3 교통문제

- 6.4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6.5 컴퓨터 이용시간
- 6.6 인터넷 이용장소
- 6.7 인터넷 상거래 이용여부
- 6.8 인터넷 이용에 따른 TV 시청 시간 변화
- 6.9 인터넷 이용에 따른 신문 읽는 시간 변화
- 6.10 이동전화 이용 여부
- 6.11 메신저 이용 여부

7. 문화와 여가·사회참여

- 7.1 TV 시청 시간
- 7.2 신문 읽는 시간
- 7.3 부모와의 문화예술 관람 및 여행
- 7.4 종교유형별 인구구성
- 7.5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7.6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 7.6.1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 7.6.2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 7.7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 7.8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7.9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 7.10 독서인구
- 7.11 해외여행 경험 횟수
- 7.1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7.13 주관적 만족도
- 7.14 후원인구
- 7.15 사회단체 참여율
- 7.16 자원봉사 참여율
- 7.17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7.18 민원서비스 만족도
- 7.19 민원서비스 불만이유
- 7.20 계층의식

8. 안전

- 8.1 청소년 교통사고
- 8.2 가출 청소년 현황
- 8.3 청소년 쉼터
 - 8.3.1 입소 청소년 현황
 - 8.3.2 가출 원인별 현황
 - 8.3.3 사후관리 현황
- 8.4 아동학대 상담 현황
- 8.5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발생장소
- 8.6 청소년 상담 이용 현황
- 8.7 청소년 유해매체
 - 8.7.1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책 등 간행물 이용경험
 - 8.7.2 성인용 비디오, 영화 이용경험
 - 8.7.3 음란사이트 이용경험
 - 8.7.4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사용방법
- 8.8 가출충동을 느끼는 상황
- 8.9 준법수준
- 8.10 청소년 폭력 피해
 - 8.10.1 급우·또래로부터 욕설·협박 피해 경험
 - 8.10.2 급우·또래로부터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경험
 - 8.10.3 급우·또래로부터 폭행 피해 경험
 - 8.10.4 급우·또래로부터 금품 갈취 피해 경험
 - 8.10.5 폭력을 당한 후 알린 사람
- 8.11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범죄분포
- 8.12 소년 범죄자 비율
- 8.13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
- 8.14 소년·소녀 범죄 처리 현황
- 8.15 학생 범죄 처리 현황